

朝鮮朝 經筵에서 肅宗의 讀書歷 考察*

A Study on the Soogjong'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 of Joseon Dynasty

金重權 (Kim, Joong-gwon)**

◁ 목 차 ▷

- | | |
|-------------|-----------|
| 1. 緒言 | 5. 讀書沮害要因 |
| 2. 肅宗의 經筵制度 | 6. 結言 |
| 3. 讀書日程 | <참고문헌> |
| 4. 讀書回數分析 | |

< 초 록 >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19대 왕 肅宗의 독서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實錄을 통해 재위 45년간 그의 독서행태를 일정별로 살펴보았다. 숙종은 현종이 승하하자 14세에 왕위에 올라 모든 제도를 재정비한 뒤 경연제도에 따라 독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숙종도 부왕인 顯宗처럼 3강은 실시하지 못하고 주강과 소대에 치중하였다. 숙종은 재위기간이 45년이지만 그의 독서일정을 조사한 결과 독서력이 좋지 못했다. 그가 재위 45년 중 독서활동은 39년으로 그 동안 읽었던 책은 『論語』 『綱目』 『孟子』 『中庸』 『書傳』 『心經』 『詩經』 『周易』 『大學衍義』 『聖學輯要』 『宋鑑』 『皇明通紀』 『明紀編年』 『春秋集傳』 『禮記』 『東國通鑑』 『唐鑑』 『節約通編』 『名臣奏議』 등 19종이다. 독서 횟수를 보면 三綱의 경우 39년까지 총 1,153회였다. 이 중 조강은 8회, 석강은 18회 정도였다. 야대 및 소대는 재위기간 총 324회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숙종은 재위기간만 길었지 거의 조강, 석강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주강과 소대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평균 수치상 아주 저조한 독서율이 나오므로 인해 부왕인 顯宗보다는 우월하나 조부인 孝宗보다는 그의 독서력이 좋지 않았다.

要語: 綱目, 經筵, 論語, 唐鑑, 大學衍義, 東國通鑑, 孟子, 肅宗, 周易, 中庸, 詩經, 心經, 春秋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oogjong'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 (經筵) of Joseon Dynasty. To investigate the Silrog (the book which records the history of Korea), it knew the reading material, a reading act and attitude which he read in the Crown prince time.

Major findings are as the follows ;

The reading materials that he read for 45years were 19 titles, that is, *Noneo* (論語), *Kangmog* (綱目), *Maengja* (孟子), *Jungyong* (中庸), *Daehagyeonui* (大學衍義), *Tonggam* (通鑑) and *Simgyeon* (心經), *Jujeog* (周易) etc...

The number of times that he participated to the Jogang's reading discussion was 8, and the Jugang(書講) was 1127, Seoggang(夕講) was 18, and Sodae(召對) was 324. He was the king who disliked reading, from 1674 to 1720, when he was in power, moreover he was not almost presented at the reading discussion of the Gyeongyeon(經筵) at the end of seizure of power. As a result, Soogjong's reading career was much lower than the Hyojong's reading career in past.

Key words: *Noneo* (論語), *Kangmog* (綱目), *Gyeongyeon* (經筵), *Daehagyeonui* (大學衍義), *Maengja* (孟子), *Jujeog* (周易), *Jungyong* (中庸), *Simgyeon* (心經), *Tonggam* (通鑑)

* 본 논문은 2018학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 문헌정보학과 교수(jkkim@gwangju.ac.kr)

접수일: 2018년 8월 13일 최초심사일: 2018년 8월 28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9일
서지학연구, 제75집, 65-94,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5.65]

1. 緒言

肅宗은 1661년 8월 15일생으로 姓은 李氏, 諱는 焯, 字는 明普로 顯宗의 嫡嗣이며 孝宗大王의 손자이다. 어머니는 明聖王后 김씨로 영돈녕부사 청풍 부원군 金佑明의 딸이다. 1667년 7월에 세자에 책봉되었으며, 10세에 1671년 金萬基의 딸(인경왕후; 1661-1680)과 혼인하였다. 첫 부인인 仁敬王后는 딸만 3명을 낳고 1680년 20세에 천연두로 사망하였다. 그 후 숙종은 여양부원군 閔維重의 딸 仁顯王后 閔씨(1667-1701)와 재혼하였으나 자식이 없이 1701년 사망하자 세 번째로 金柱臣의 딸 김씨(仁元王后; 1687-1757)와 결혼하였다. 역시 자식을 보지 못했다. 다만 회장 장씨 사이에 1남(경종) 1녀, 숙원 최씨 1남(延祢君; 영조) 2녀, 명빈 박씨 1남(延齡君)을 두었다. 세자에 책봉된 뒤에는 書筵을 마련하여 차기 왕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유교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 書筵官들과 열심히 독서하였다. 그가 세자시절에 읽은 책은 『孝經』 『童蒙先習』 『小學』 『通鑑』 『大學』 『論語』 등이었다. 『論語』를 읽고 있는 기간에 부왕인 顯宗(15년; 1674)이 승하하자 14세의 어린나 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즉위하자마자 문신들과 함께 모든 관제를 정비하고 선왕들이 실시해왔던 경연제도를 마련하였다. 經筵이란 성리학을 바탕으로 인성과 덕목을 향상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인 반면에 왕권과 신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정치적인 활동이며, 왕과 신하 간에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역대 제왕들은 집권하면서부터 반드시 3講(朝講, 晝講, 夕講)과 2對(召對, 夜對)를 마련하여 경연관들과 함께 독서하고 토론해 왔다. 필자는 이러한 제도 하에 실시해온 조선시대 제왕들의 독서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太祖부터 18대 顯宗까지 독서일정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독서력이 양호한 왕도 있었고, 국내외적으로 환경이 좋지 않거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독서력이 아주 저조한 왕도 있었다. 肅宗의 부왕인 顯宗의 경우 초기엔 열심히 독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위 15년간 읽었던 책은 『中庸』 『大學衍義』 『資治通鑑』 『心經』 『綱目』 등 총 5책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이 책 모두 완독하지 못할 만큼 저조한 독서력이었다. 당시 顯宗의 독서력이 저조한 원인은 국내적으로는 예론문제, 계속된 가뭄과 기근 등이 원인이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재위 초년부터 눈병, 위장병, 인후통, 두통, 오한, 치통, 요통 등에 시달린 이유였다.¹⁾ 이와 같이 부왕의 독서환경을 보고 자란 肅宗도 많은 곡절을 겪었다. 정치적으로 보면 예송논쟁(1674), 경신대출척사건(1680), 기사환국(1689), 갑술환국(1694), 무고의 옥(1701) 등 수많은 당쟁의 소용돌이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여성문제, 건강문제 등이 가장 큰 독서 장애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肅宗 재위 45년 동안 경연에서 독서방법 및 행태는 어떠했는지, 어떤 책을 주로 읽었는지, 함께한 경연관은 누구였으며, 독서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당시 왕으로서의 가치관, 인성, 소통능력 및 정치적인 소신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다만 전 왕조의 경연제도와 교육적인

1)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顯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70집(2017. 6), 21-38.

분야만 몇 편 있을 뿐이다.²⁾ 따라서 본고에서는 『朝鮮王朝實錄』을 토대로 肅宗의 經筵制度에 따른 독서일정과 경연관, 그가 읽은 책, 독서 횟수 및 독서저해요인 등을 분석하여 그의 독서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肅宗의 독서력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인성과 가치관, 소통능력 등이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력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토대는 물론 조선조 경연사 및 독서사 연구에 일조가 되고자 한다.

2. 肅宗의 經筵制度

부왕인 顯宗이 재위 15년(1674) 8월 18일 창덕궁 齋廬에서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자 곧바로 숙종이 즉위하였다. 숙종은 모든 관제를 재정비하면서 즉위하는 해(1674) 12월 25일 영의정 許積(1610-1680)에 의해 경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연을 시작한 시기로 보면 선왕들의 경우 卒哭(三虞祭 이후 제사) 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숙종의 경우도 卒哭 이후에 준비되었다. 먼저 경연관 구성과 경연방식, 장소, 경연에서 읽어야 할 책을 선정하였다. 경연관의 구성은 선왕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과거의 구성을 보면, 경연관을 堂上官과 郎廳으로 구분하고, 당상관은 영사 3명, 지사 3명, 동지사 3명, 참찬관 7명으로 모두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문관이 아니어도 가능했다. 영사는 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겸하고, 정2품인 지사와 종2품 동지사 중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하였으며, 참찬관은 정3품 승지와 홍문관부제학이 겸직했다. 낭청은 정4품 시강관, 정5품 시독관, 정6품 검토관으로 모두 문관인 홍문관원이 겸직하였다. 시강관은 直提學, 典翰, 應教, 副應教가 겸하였고, 시독관은 교리와 부교리가 겸하였으며, 검토관은 修撰과 副修撰이 겸하였다. 정7품 司經, 정8품 說經, 정9품 典經은 參外職으로 홍문관의 博士, 著作, 正字가 각각 겸임하였다.³⁾ 그 밖에 2품 이상의 재상을 특진관이라 하여 경연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表 1> 經筵官 品階

品階	正1品	正2品	從2品	正3品	正4品	正5品	正6品	正7品	正8品	正9品
	堂上官				郎廳			參外職		
職責 및 數	領事 3명	知事 3명	同知事 3명	參贊官 7명	侍講官	侍讀官	檢討官	司經	說經	典經
兼職	議政이 겸임			承旨와 副提學이 겸임						

2)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1991).

南智大,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韓國史論』 6(1986), 117-170.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友石 文理大·法經大論文集』 第4輯(1970. 12), 131-186.

3) 經國大典, 吏典, 正三品衙門, 經筵條. p.13 下.

顯宗 때는 경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경연관 외에 무관 堂上 1명,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한 사람씩 교대로 입시하도록 하였다. 專經文臣 등은 하루 먼저 落點하여 각자 전공하는 책을 가지고 강독에 참여하거나 혹 文義를 진달하도록 하였다.⁴⁾ 숙종 때 역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참여 대상과 인원을 보면 朝講의 경우 전례대로 영사 1명, 특진관 2명, 兩使 각각 1명, 晝講에는 경연관과 특진관 각 1명, 玉堂의 上下番과 備局의 당상 1인과 臺諫이 함께 입시도록 하였으며, 약간 변동된 사항은 숙종 2년(1676) 1월부터 현종 때 실시한대로 武臣의 당상 1인도 교대로 참여토록 한 것과 注書 2명이 들어왔던 것을 예전대로 1명만 들어와 글의 뜻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⁵⁾ 좌석배치는 왕은 북쪽에 앉아 남쪽을 향하고, 1품은 동쪽에 앉아 서향하고, 2품은 서쪽에 앉아 동향, 3품 이하는 남쪽에서 북향으로 仆伏하였다. 경연 방식은 선왕들처럼 3講(조강, 주강, 석강)과 召對 및 夜對로 정하였으나 실제 숙종은 주강과 소대 및 야대 위주로 실시하였다. 경연 장소는 宣政殿으로 하고 卒哭기간에만 조강과 주강은 廬幕에서 하도록 하였다. 독서방식은 조강과 주강에서는 경연관들과 글을 읽고 토론하고, 석강이나 야대에는 복습 및 다른 책으로 강독하도록 하였다. 경연에서 읽을 첫 번째 책으로는 『論語』가 선정되었으며, 召對와 夜對에서 읽어야 할 책은 許積이 추천한 『綱目』으로 하였다.⁶⁾

3. 讀書日程

본 장에서는 재위 기간 45년을 초기 15년, 중기 15년(16-30년), 말기 15년(30-45년)으로 세구분하여 경연제도에 따른 독서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初期의 讀書

숙종은 卒哭이후 재정비된 經筵制度에 따라 즉위년(1674) 12월(1674) 27일 夜對廳(宣政殿 서편 건물; 방 1칸과 마루 3칸)에서 처음으로 晝講을 열고 시독관 尹趾完 등과 『論語』를 읽었다.⁷⁾ 『論語』는 세자시절 癸丑年(1673) 4월 22일부터 처음 읽기 시작하였으므로⁸⁾ 그 뒤를 이어 제3권 <八佾篇>부터 읽었다. 다음해인 숙종 1년(1675)에도 계속해서 주강에서 『論語』를, 야대에서는 『綱目』을 읽었다. 주강에서 독서한 날은 1월 2, 6, 7, 11, 12, 19, 20, 21, 22, 24, 28일 등 총 11일간이었으며, 야대는

4) 『顯宗改修實錄』 顯宗. 卽位年 11月 22日(己卯) 卷2. 冊37. p.130.

5) 『朝鮮王朝實錄』 肅宗. 3年 4月 5日(辛亥) 卷6. 冊38. p.354.

6) 『朝鮮王朝實錄』 肅宗. 卽位年 12月 25日(甲寅) 卷1. 冊38. p.228.

7) 『朝鮮王朝實錄』 肅宗. 卽位年 12月 27日(丙辰) 卷1. 冊38. p.228.

8) 『列聖進講冊目錄』 <登極後經筵進講冊子次第>

3일 1회, 소대는 9, 10, 13일 3회뿐이었다. 시독관은 權愈, 李濡, 검토관은 任相元, 李壽慶, 南天漢 등이었으며, 1월 3일에는 夜對를 열어 『綱目』 제1권을 읽은 뒤 입시한 신하들에게 각각 감귤을 한 그릇씩 나누어 주었다. 2월의 독서는 1, 2, 5, 18, 20, 21, 29일 총 7일, 소대는 26일 하루만 실시하였다. 2월 2일 주장에서는 權愈, 吳始復, 尹鏞 등이 洪宇遠을 학문이 고명하고 행실이 끝나하여 경연의 참찬관으로 추천하였다.⁹⁾ 참찬관으로 들어온 洪宇遠에게 숙종이 글을 읽도록 했는데 숨이 가쁘다는 이유로 읽지 않자 李鎭夏가 대신 읽었다. 글을 읽은 뒤 洪宇遠에게 글의 뜻을 설명하도록 했으나 그 동안 경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큰 뜻만을 대략 말하였다. 학문이 고명하다하여 추천되었는데 별거 아니라는 반응들을 보였다.¹⁰⁾ 2월 26일 玉堂官을 소대하여 『綱目』의 <張儀가 여섯 나라를 유세하였다>는 내용으로 尹鏞가 설명하였으며, 설명을 마친 뒤 경연에서 설명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므로 上注書에게 기록하여 바치도록 하였다.¹¹⁾ 숙종의 독서노트이면서 독서토론의 내용을 담은 기록이 생성된 것이다. 3월에는 주장을 17, 18, 19, 26일까지 4회, 4월에는 2, 3, 5, 16, 17, 20, 21, 23일로 총 8일간 실시되었다. 강독 부분은 『論語』 <顏淵> 제12장 6절로 子張이 ‘明’에 대해서 공자에게 질문하는 부분인 <浸潤膚受>였다.¹²⁾ <堯曰> 20장까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면 꾸준히 독서한 것으로 판단된다. 16일에는 『論語』 <顏淵> 제12장 21절 樊遲가 공자에게 ‘崇德辨惑’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을 강독하였으며, 21일에는 동지사 張善澂, 講官 李夏鎭 등과 『論語』 <顏淵> 제12장 20절 ‘子張問士’까지 강독하였다. 해설에 있어서 張善澂와 李夏鎭의 의견이 완전히 달랐다. 張善澂의 경우 군주는 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야지 절대 죽이는 일은 삼가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李夏鎭은 잘못이 있을 경우 죽여서라도 바로잡아 군주의 강직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15세의 어린 왕을 앞에 놓고 글을 해석하는 차이가 두 사람이 전혀 상반된 견해를 보여준 것이다. 李夏鎭의 경우 宋時烈을 비방하고 귀양 보내는데 앞장 선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¹³⁾ 계속해서 숙종은 이들과 함께 『論語』 <顏淵> 제12장 22절 ‘舉直錯枉’ 부분을 읽었다. 당시 참여한 경연관들의 해설을 보면,

- “李夏鎭: 오늘 바른말 하는 사람을 쓰고 바르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을 내치며, 내일 또 바른말 하는 사람을 쓰고 바르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을 내치며, 모래도 이와 같이 한다면, 정직한 사람은 저절로 나오게 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저절로 물러가게 될 것이니, 조정이 어찌 淸明하지 않겠습니까?
 權 愈: 다른 章을 강할 필요 없이 다만 이 한 章이면 넉넉히 쓸 만합니다.
 金錫胄: 어진 자를 임용하고 간사한 자를 버리는 것은 모두 사람을 알아보는 데 속합니다. 사람을 알아본 뒤에야 마음의 굽고 바른 소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볼 줄을 모르면 바른 이를 굽다고 여기고, 굽은 이를 바른 이로 여기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에 있어

9) 『朝鮮王朝實錄』 肅宗. 1年 2月 2日(庚寅) 卷2. 冊38. p.242.
 10) 『朝鮮王朝實錄』 肅宗. 1年 2月 20日(戊申) 卷2. 冊38. p.246.
 11) 『朝鮮王朝實錄』 肅宗. 1年 2月 26日(甲寅) 卷2. 冊38. p.246.
 12) 『朝鮮王朝實錄』 肅宗. 1年 4月 3日(辛卯) 卷3. 冊38. p.260.
 13) 『朝鮮王朝實錄』 肅宗. 1年 4月 21日(己酉) 卷3. 冊38. p.267.

서 人物은 아주 작으며 또 外敵이 침입하는 근심도 있으니, 반드시 인재를 살펴서 임용해야 할 것입니다.”¹⁴⁾

위 대화의 핵심은 서로 간에 본인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서 서인을 몰아내고, 남인을 등용하려는 계책을 세우려 한 것이다. 金錫胄가 알아차리고 숙종에게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게 한 것이다. 남인의 주축으로 5월의 주장은 5회 실시되었다. 동월 25일 주장에서 權愈가 『論語』 <子路> 13장 11절 “子曰 善人 爲邦百年 亦可以勝殘去殺矣 誠哉是言也(선인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백 년 동안 하면 잔혹함을 이기고 사형을 없앨 수 있다. 이 말이 참으로 옳도다.)”를 읽고 <去殺>에 대해서 해석하였다. 이들의 해석을 보면,

“權 愈: 漢代의 文帝가 비록 나라를 잘 다스려서 형벌을 폐지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嚴格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린 것이니, 堯와 舜만 仁政일 뿐이었고, 漢代 이후부터는 엄격하게 하여 백성을 두렵게 하였을 뿐입니다.

許 積: (그를 비난하면서) 다만 백성을 두렵게만 한 것은 바로 秦의 범입니다.”¹⁵⁾

이들의 해석은 자꾸 자신들의 주장을 일관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제왕은 덕의 정치를 근본으로 해야 함이 원칙인데, 형벌을 주어 엄격함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곧 이들의 속셈이 서인을 축출하는데 억압을 주는 면이 없지 않다. 또한 이 날 『綱目』을 읽으면서 李夏鎭이 말하길 “楚의 법은 군주가 일마다 힘쓰지 않고, 나라의 일을 모두 令尹들이 하였습니다.”하였는데, 이는 임금이 어리니가 정사를 南人인 許積과 尹鑄 등에게 오랫동안 위임시키게 하고자 한 것이다. 독서를 통해 어린 왕을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계획대로 끌고 가려는 무서운 계책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윤5월의 주장은 6, 8, 9, 10, 19일까지 5회, 26일엔 소대를 실시하였다. 6일 주장에서는 부응교 李夏鎭은 거짓으로 병을 칭탁하여 나오지 않았다. 이는 자신이 주장하는 뜻에 따라 홍문관의 홍문록 선발을 관철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때문에 주장은 정과되었다.¹⁶⁾ 9일 주장에서는 講官 李夏鎭이 『論語』 <子路> 13장 21절 ‘不得中行’의 문장에서 주를 설명하면서 ‘不屑不潔’을 잘못 해석하여 不屑 및 不潔하여 金錫胄가 지적하였는데, 특진관 吳挺緯가 나서서 두 사람 말이 모두 옳다고 하여 李夏鎭을 덮어주려고 하였다. 그리고 13장 23절 ‘君子和而不同’ 부분에서는 許穆(1595-1682)이 ‘和’자의 의미가 무궁하다하면서 『中庸』에 나오는 ‘和’자의 뜻과 13장 22절 ‘人而無恒’에 대해서 자기식대로 해석하였다. 이에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中庸』에서 말한 和는 여기서 말한 和자와는 뜻이 다른데, 許穆이 배우지 못하여 잘못 끌어다 든 것이니, 당시의 소위 儒臣 講官들이란 荒蕪하고 可笑로워서 모두가 이러한 무리들이었다. <無恒章>에 이르러서 李夏鎭과 吳挺緯 및 講官 權愈가 人君의 정치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14) 『朝鮮王朝實錄』 肅宗. 1年 4月 23日(辛亥) 卷3. 冊38. p.268.
15) 『朝鮮王朝實錄』 肅宗. 1年 5月 25日(癸未) 卷3. 冊38. p.277.
16) 『朝鮮王朝實錄』 肅宗. 1年 윤5月 6日(癸巳) 卷4. 冊38. p.280.

뜻을 열심히 말하였다. 이는 임금의 자기들에게 오래 맡겨서 물리치지 말게 하자는 것이었다.”¹⁷⁾

이는 어린 왕에게 독서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점만을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6월, 7월, 8월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경연을 휴강하고, 6월 2일 하루만 옥당관원을 소대하여 독서하였다. 이날 승지 趙嗣基는 소대에서 『綱目』만 볼 게 아니고 성학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도록 권유하였으나¹⁸⁾ 반응이 없었다. 9월부터 경연이 시작되었으며, 10월의 주강은 5, 9, 10일 3회, 11월에는 17, 18, 20, 21, 27일까지 총 5일간 실시하고 날씨 관계로 12월까지 휴강에 들어갔다. 휴강을 끝낸 숙종은 다음해인 숙종 2년(1676) 1월 5일 야대로 독서를 시작하여 1월 말까지 8회의 주강을 실시하였다. 그의 독서방법은 소리 내어 읽는 音讀이었다. 당시 숙종이 너무 큰소리로 글을 읽자 동지경연사 閔熙가 “큰 소리로 글을 읽으시면 기운이 손상될까 염려됩니다. 하니, 숙종은 글을 읽다가 좋은 대목을 만나면 저절로 큰 소리가 난다.”¹⁹⁾고 답하는 것을 보면 音讀임을 알 수 있다. 숙종은 3월 20일 『論語』를 완독한 뒤 다음 과목으로 『孟子』를 선정하였다.²⁰⁾ 『論語』는 숙종 즉위년 12월 27일부터 읽기 시작하여 2년 3월 20일에 완독했으므로 1년 2개월 정도 걸린 셈이다. 『孟子』의 독서는 4월에도 계속되어 許積 등과 <雪宮章>을 읽었다.²¹⁾ 5월의 주강은 총 8회로 야대와 소대는 한 번도 없었다. 5월 19일 주강에서 검토표 柳命堅은 명대의 유신 薛瑄(1389-1464)이 지은 『讀書錄』을 올려 읽도록 권하였다.²²⁾ 20일, 21에는 검토표 李聃命, 지사 金錫胄, 許積, 權大運, 시독관 柳命賢 등이 참여하였으나, 6월, 7월, 8월까지는 휴강하였다. 9월엔 2, 10, 11일로 3일간 洪宇遠 등과 주강을 실시하였으며, 10월 하루, 11월엔 8, 11, 13, 21일 4회 실시하고, 야대는 10일 1회 실시한 뒤 玉堂官들을 불러 술과 안주를 내려 치하하였다. 12월의 독서 역시 휴강하고, 다음 해인 숙종 3년(1677) 1월부터 열심히 독서하려는 의욕을 보였다. 1월의 독서는 주강은 4, 12, 16, 20, 24, 27일까지 6회, 2월은 8회, 야대는 18일 1회, 3월 4회, 4월 5회, 5월 8회 실시하였으며, 6월은 5일 하루만 주강에서 독서하고 휴강에 들어갔다. 7월은 2회, 8월 6회, 9월 9회 실시하는 중 9월 15일 『孟子』를 완독하고, 9월 24일 차기 과목으로 『中庸』을 선정하였다.²³⁾ 이 날 숙종은 『中庸』을 읽으면서 玉堂官에게 “『中庸』은 다른 책과 다르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하며 음미하고자 하니, 이제부터는 많이 읽으려고 힘쓸 필요가 없이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²⁴⁾ 그 후 10월엔 총 10회로 가장 많은 주강을 열었으며, 11월 3회, 12월 1회로 재위 3년을 마무리 하였다. 당시 경연에 참여한 문신은 참찬관 權璫, 시독관 柳命賢, 姜碩賓, 사관 李漢命 등으로 이들은 1월 9일 야대에서 너무 과음으로

17) 『朝鮮王朝實錄』 肅宗. 1年 윤5月 9日(丙申) 卷4. 冊38. p.281.

18) 『朝鮮王朝實錄』 肅宗. 1年 6月 2日(己未) 卷4. 冊38. p.286.

19) 『朝鮮王朝實錄』 肅宗. 2年 1月 28日(辛亥) 卷5. 冊38. p.320.

20) 『朝鮮王朝實錄』 肅宗. 2年 3月 20日(壬寅) 卷5. 冊38. p.326.

21) 『朝鮮王朝實錄』 肅宗. 2年 4月 19日(辛未) 卷5. 冊38. p.328.

22) 『朝鮮王朝實錄』 肅宗. 2年 5月 19日(庚子) 卷5. 冊38. p.328.

23) 『列聖進講冊目錄』 <登極後經筵進講冊子次第>

24) 『朝鮮王朝實錄』 肅宗. 3年 9月24日(戊戌) 卷6. 冊38. p.368.

예의를 잃는 행동이 심했으며, 姜碩賓의 경우 자리에다 토하고 눕기까지 하였다 한다.²⁵⁾ 어린 왕이라 하여 질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 4년(1678)에는 숙종의 건강문제와 두창이 전염된 관계로 독서를 자주 하지 못했다.²⁶⁾ 다만 경연관을 불러 4월에 소대만 10, 12, 13, 18, 20, 24, 26일 7회 실시하면서 『中庸』을 완독하였다. 다음 읽을 책으로 『書傳』을 선정하여 5월 1일 소대부터 읽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2월까지 소대만 여러 차례 이루어졌을 뿐 공식적인 독서는 하지 못했다. 숙종 5년(1679)에도 숙종의 건강문제로 독서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1월에 소대만 4회 실시하고 주강은 1회 실시하였다. 독서 자료는 소대과목으로 『綱目』을, 주강에서는 『書傳』을 읽었으며, 2월, 3월도 2회에서 7회 정도 주강이 실시되었다. 소대는 3월 18일 하루 이루어졌는데 독서태도는 글을 읽으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당시의 정세와 비교하며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4월 5회, 5월 5회, 6월 2회, 7월은 소대 1회, 주강 1회 실시하였으며, 8월의 주강은 2회, 9월 3회, 10월 5회, 소대는 2, 9일 2회, 11월 3회 실시하고 12월은 정지하였다. 숙종 6년(1680) 1월에는 주강 2회, 2월 4회로 知經筵 金錫胄, 시독관 尹義濟 등과 함께 하였으며, 3월과 4월은 휴강하였다. 5월의 주강은 2회, 6월 9회, 소대는 22일 1회 실시하였다. 6월 14일 주강에서는 참찬관 南二星이 날씨가 더워서 경연을 계속 열지 못하더라도 나이가 젊으니 중단하지 말고 밤은 모든 움직임이 중지되고 조용해서 경서를 읽고 토론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므로 夜對를 열도록 건의하였다.²⁷⁾ 7월에는 무더위로 주강을 열지 않고 소대만 6, 9, 24일 3회 실시하면서 吳道一이 李珥가 지은 『聖學輯要』를 숙종에게 추천하였다.²⁸⁾ 8월의 주강은 2, 4, 6, 8일 4회 실시하였다. 동월 3일에 吳道一이 상소를 올려, 읽고 있는 『綱目』은 卷帙이 많아 언제까지 완독해야 할지 기약을 할 수 없으므로 읽기를 중단하고 『書傳』과 7월에 추천한 『聖學輯要』를 겹쳐서 읽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숙종은 『綱目』을 강독하는데 비록 卷帙이 많다고 하더라도 治亂과 安危의 자취가 역사책에 밝혀져 있으니, 중단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여²⁹⁾ 계속 독서할 뜻을 밝혔다. 그리고 윤8월에는 주강을 11, 24, 25, 26, 28, 29일 6회 정도 실시하고 9월에는 1일 주강과 석강 1회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숙종이 한 달 이상 독서에 등한시하자 승정원에서는 경연을 자주 열어 독서하도록 건의하기도 하였다.³⁰⁾ 그 후 10월 4일부터 경연을 재개하여 그 달의 주강은 9회, 소대는 13, 14일 2회 정도 실시하였다. 동월 12일에 특별히 宋時烈을 불러 면담하는 가운데 경연에서의 독서에 대한 문답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肅宗: 춘궁에 있을 때 한두 차례 경을 보았는데 지금 경의 수염과 머리가 이미 쇠잔하여 희었습니다.
宋時烈: 전하께서 춘궁에 계실 때에는 『小學』을 講하셨었는데, 그 뒤에 經筵에서 몇 冊이나 끝마쳤으며, 지금은 무슨 책을 講하시고 계십니까?”

25) 『朝鮮王朝實錄』 肅宗. 2年 5月 9日(丙戌) 卷6. 冊38. p.343.
26) 『朝鮮王朝實錄』 肅宗. 4年 1月 15日(丁亥) 卷7. 冊38. p.378.
27) 『朝鮮王朝實錄』 肅宗. 6年 6月 14日(辛未) 卷9. 冊38. p.458.
28) 『朝鮮王朝實錄』 肅宗. 6年 7月 24日(辛亥) 卷9. 冊38. p.466.
29) 『朝鮮王朝實錄』 肅宗. 6年 8月 3日(己未) 卷10. 冊38. p.469.
30) 『朝鮮王朝實錄』 肅宗. 6年 10月 3日(戊子) 卷10. 冊38. p.490.

肅 宗: 『論語』, 『中庸』을 읽었고, 겨우 『書傳』을 끝마쳤으며, 『詩傳』을 읽으려 하고 있습니다.
 宋時烈: 입으로만 읽으면 아무런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예부터 신하가 임금에게 勸하는 것은 언제나 體驗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성상께서 과연 체험하시는지 아니면 격식만 갖추 따름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肅 宗: 내가 비록 영민하지는 못하지만 하고 싶은 것은 체험하려고 합니다.
 宋時烈: (일어나서 절을 하고) 그렇다면 東方 社稷의 다행입니다. 經筵에서 몇 篇을 進講하시며 몇 차례나 되풀이하여 읽으십니까?
 肅 宗: 小篇이면 다 진강하고, 大篇이면 반만 하고, 읽는 것은 많이 할 경우 80차례 합니다.
 宋時烈: 옛사람이 讀書하는 방법은 文字에 익숙하게 한 다음에 巴야호로 문장의 뜻을 알게 하였으니, 의미를 알아야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³¹⁾

위의 내용에서 숙종은 『書傳』을 겨우 완독하고 『詩經』을 읽으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월 13일 소대에서는 玉堂官과 독서한 뒤 시독관 林泳, 洪萬鍾 등이 周濂溪의 <太極圖說>과 張橫渠의 <西銘> 두 편을 宋時烈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진강하도록 건의하였다.³²⁾ 다음 날 14일엔 玉堂官을 소대할 때 宋時烈을 불러 <太極圖說>과 <西銘>을 진강하게 하고 강이 끝난 후 貂皮 帽子를 선물로 주었으며,³³⁾ 16일 주장에서는 宋時烈을 특별영경영사로 삼았다. 그 후부터 12월까지 경연과 소대는 날씨가 추워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숙종 7년(1681)의 독서일정을 보면 조강이 8월 9일 1회, 석강 10월 22일 1회, 그리고 주장과 소대가 전부였다. 주장의 경우 1, 2월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3월 7, 8, 9, 11, 14, 15, 16일 총 7회, 4월 18, 22일 2회, 5월 3회, 6월 0회, 7월 3회, 8월 3회, 9월 5, 17, 19, 21, 25, 26, 28, 29일 8회, 10월에는 1, 2, 8, 9, 10, 12, 13, 14, 15, 16, 17, 19, 21, 22, 28일까지 15회, 11월 2회, 12월은 휴강하였다. 7년에는 1, 2, 6월은 독서를 하지 않았으나 10월에는 15회로 당시 가장 많은 횟수를 보였다. 소대는 1월 11, 14, 18, 21, 25, 30일 6회, 2월 11일 1회, 3월 0회, 4월 14일 1회, 5월 0회, 6월 0회, 7월 2회, 8월 6일 1회, 9월 0회, 10월 29일 1회, 11월과 12월에는 소대가 없었다. 독서자료는 1월 11일부터 『心經』과 『詩經』을 읽었으며, 10월 29일에는 李滉의 『聖學十圖』를 읽었다.³⁴⁾ 당시 경연에 참여한 인물은 영의정 金壽恒, 특진관 宋時烈, 金禹錫, 南龍翼, 동지경연사 李敏叙, 李端夏, 李翊相, 지경연사 呂聖齊, 金錫胄, 李翺, 시강관 趙持謙, 시독관 林泳, 吳道一, 朴泰遜, 李墩, 宋光淵, 검토관 朴泰輔, 金鎭龜, 金鎭龜, 참찬관 李寅煥, 李濡 등이었다. 이중 시독관 林泳이 3월 소대에서 숙종에게 말한 내용을 보면,

“바야호로 지금 학문이 날로 進步하셔서 『四書』와 『書傳』을 이미 마치셨고, <周南>, <召南>도 또한 이미 講讀하셨는데, 三古聖(文王, 武王, 周公)의 일이 모두 이 가운데 있으니, 전하께서 講讀만을 일삼으실 것이 아니라, 邁양 齊聖으로써 마음을 삼으신다면, 이 뜻이 推究하는 바 治道가 隆盛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³⁵⁾

31) 『朝鮮王朝實錄』 肅宗. 6年 10月 12日(丁酉) 卷10. 冊38. p.491.
 32) 『朝鮮王朝實錄』 肅宗. 6年 10月 13日(戊戌) 卷10. 冊38. p.492.
 33) 『朝鮮王朝實錄』 肅宗. 6年 10月 14日(己亥) 卷10. 冊38. p.492.
 34) 『朝鮮王朝實錄』 肅宗. 7年 10月 29日(戊申) 卷12. 冊38. p.560.
 35) 『朝鮮王朝實錄』 肅宗. 7年 3月 16日(己巳) 卷11. 冊38. p.521.

이는 숙종이 論語, 孟子, 大學, 中庸 등 『四書』와 『書傳』을 완독했다는 근거와 독서 자세를 설명한 내용이다. 7월 12일 소대에서는 독서를 마친 뒤 시독관 吳道一이 숙종에게 宋時烈이 일전에 추천했던 『心經』을 열심히 읽도록 권유하였다.³⁶⁾ 즉, 읽고 있는 『綱目』도 좋지만 마음을 다스림에는 『心經』이란 책이 최고라는 것이다. 숙종 8년(1682)에 주강은 1월 7, 12, 17, 19, 26, 27일로 6회, 소대는 27일 1회, 2월 주강은 6회, 3월은 휴강하고, 4월엔 28일 1회 밖에 실시하지 못했다. 5월은 7회, 6월은 2회, 7월은 24일 1회, 19일 소대 1회, 8월 6회, 9월 2, 11, 14, 24일 4회, 10월은 19일과 28일 2회, 소대는 16일 1회, 11월은 10, 24, 25일 3회, 소대는 30일 1회 실시하였으며, 12월은 4일 1회, 11일 소대 1회뿐이었다. 재위 8년에 1년간의 독서는 주강 39회, 소대는 총 5회뿐으로 거의 밤의 독서는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독서자료는 『詩經』으로 독서에 참여한 경연관은 시독관 沈濡, 吳道一, 시강관 金鎭龜, 沈壽亮 등이었다.

숙종 9년(1683)의 독서는 1월 주강 15, 19, 24, 28일 4회, 소대는 7, 9, 22일 3회, 야대 24일 1회 실시하였으며, 2월의 주강은 2회, 소대는 14, 20일 2회, 3월의 주강은 8회, 소대는 16일 1회, 4월 주강은 1, 2, 4, 5, 10, 11, 19, 21, 22, 26, 28, 29일로 총 12회로 최근 상당히 많은 독서 횟수를 보였다. 5월 주강은 1, 6일 2회, 6월 주강은 2회, 7월은 주강을 6회, 8월의 주강은 2, 5, 6, 10, 11, 24, 26일까지 7회, 9월 주강은 4회와 소대 2회, 실시하였다. 당시 숙종은 宋時烈과 영상 金壽恒의 도움으로 『詩經』 독서에 치중하려고 노력하였다. 송시열은 1월 15일 주강에서 “<風>에는 별로 深奧한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雅> <頌>에는 監戒할 곳이 많으니, 留意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답례로 술을 하사하면서³⁷⁾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19일에도 宋時烈은 주강에서 『詩經』 <抑篇> “벗에게 은혜를 베푼다(惠于朋友)”는 구절에서 숙종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가하였다.³⁸⁾ 그러나 숙종의 독서태도는 좋지 못했다. 즉 읽기만 하고 질문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영상 金壽恒은 숙종에게 경연에서의 독서할 때 올바른 자세를 제시하였다. 즉, 임금이 책을 읽으면서 경연관에게 질문하면 경연관은 설명하고 경연관은 임금에게 질문하면 변론하는 형식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³⁹⁾ 그 이후에도 숙종이 여전히 경연에서 책을 읽을 때 질문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관계로 부교리 金昌協은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다.⁴⁰⁾ 결국은 질문 없이 『詩經』을 4월 11일 완독하였다. 완독 후 다음 책으로 宋時烈은 『易經』을, 朴世采는 『心經』을 추천하였는데 『心經』을 먼저 읽도록 하여⁴¹⁾ 4월 22일부터 시작하였다. 동년 9월 2일 주강에서는 『心經』의 내용 중 “술이 과하면 안으로는 심지를 어둡게 하고, 밖으로는 몸가짐을 해치게 된다”는 부분을 읽고 관원들에게 술을 경계하라는 정책을 세우기도 했다.⁴²⁾ 그리고 9월 11일 소대에서는 역사책을 읽었다. 玉堂官

36) 『朝鮮王朝實錄』 肅宗. 7年 7月 12日(癸亥) 卷12. 冊38. p.543.

37) 『朝鮮王朝實錄』 肅宗. 9年 1月 15日(丁巳) 卷14. 冊38. p.620.

38) 『朝鮮王朝實錄』 肅宗. 9年 1月 19日(辛酉) 卷14. 冊38. p.622.

39) 『朝鮮王朝實錄』 肅宗. 9年 3月 20日(壬戌) 卷14. 冊38. p.633.

40) 『朝鮮王朝實錄』 肅宗. 9年 7月 17日(丙戌) 卷14. 冊38. p.658.

41) 『朝鮮王朝實錄』 肅宗. 9年 4月 15日(丁亥) 卷14. 冊38. p.637.

金昌協이 역사책은 경전과 달라 한 차례 강독하는 것은 몇 장에 불과하므로 앞으로는 구절마다 번역할 필요가 없이 1, 2편을 계속해서 읽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었다.⁴³⁾ 10월 이 후 천연두의 확산으로 독서는 정지되었다. 숙종 10년(1684)에도 천연두가 진정되지 않아 7월까지 경연을 열지 못했다. 6월 20일 한 차례만 옥당관을 불러 독서하였다. 8월부터 주강을 열어 6, 9, 11, 28일까지 4회 정도 독서를 하였다. 당시 독서한 책은 『心經』 <牛山章>이었으며, 계속해서 9월에도 독서일은 5, 6, 11일로 3회뿐이었다. 9월 6일 독서하면서 숙종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도 하였다.⁴⁴⁾ 그 후 독서는 없었으며, 10월 5일 옥당관을 소대하여 독서한 것뿐이다. 숙종 11년(1685) 1월에도 주강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소대만 2, 6, 8, 18, 19, 27, 28일까지 7회로 읽은 책은 『心經』과 『綱目』이었다. 2월에는 휴강하고 3월부터 주강만 9, 11, 18, 21, 27일 5회 실시되었으며, 4월의 주강은 4, 11, 12, 18, 19, 21, 22, 24일 8회 실시되었다. 5월 주강은 6, 11, 12, 16, 19, 20, 26, 28일까지 총 8회로 시독관 李墩, 김도관 尹德駿, 경연지사 申晷 등과 함께하였다. 6월의 주강은 2, 5, 9일 3회 실시되었다. 6월 5일 『心經』을 완독하고, 9일부터 처음으로 시강관 申晷 등과 『周易』을 강독하였다. 그러나 그 후 중단되었다가 9월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9월 주강에서 독서는 4, 11, 17일까지 3회 실시되었으며, 9월 4일 주강에서 시독관 申啓華와 『周易』의 <序文>부터 <乾卦>까지 읽었다. 당시 숙종의 독서행태는 程傳(程子の 주석)만 읽고 本義(朱子の 주석)는 읽지 않는 부분 독서였으며 질문도 없었다.⁴⁵⁾ 이에 부제학 李畬가 그의 독서행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다. 즉, 숙종이 평소 경연에서 『易經』을 강독할 때나 토론할 때 질문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또한 『易經』에 능통한 자들을 선발하여 강론 후 어려운 점에 관해서 서로 논의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다.⁴⁶⁾ 그 다음해인 숙종 12년(1686)에도 계속해서 주강과 소대를 실시하였으나 독서행태는 고쳐지지 않았다. 당시 주강의 독서 일정을 보면, 1월은 휴강하고, 2월은 1일 1회, 3월 9일 1회, 4월 9회, 윤4월 9회, 5월 5회, 6월 휴강, 7월 6회, 8월 휴강, 9월 6회, 10월 6회, 11월 7회, 12월 휴강으로 1년 총 50회로 7일에 1회씩 한 셈이다. 한 번도 주강에서 독서하지 않은 시기는 1월, 6월, 8월, 12월이었다. 소대 및 야대는 윤4월 20일 1회, 5월 0회, 6월 9일 1회, 7, 8, 9, 10월은 0회, 11월 27, 29일 2회, 12월은 야대를 1, 7, 17, 18일 4회, 소대 11일 1회 실시하였다. 주강이나 소대 및 야대에 참여한 경연관은 김도관 姜銳, 시독관 金昌協, 李頤命, 李徵明, 申啓華 등 4명, 시강관 李頤命, 지평 洪受瀾 등이었다. 이 중 金昌協은 윤4월 18일 숙종이 독서하면서 여전히 질문이 없자 『易經』은 다른 책과는 달리 오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많으므로 경연관에게 질문하라고

42) 『朝鮮王朝實錄』 肅宗. 9年 9月 2日(庚午) 卷14. 冊38. p.663.

43) 『朝鮮王朝實錄』 肅宗. 9年 9月 11日(己卯) 卷14. 冊38. p.663.

44) 『朝鮮王朝實錄』 肅宗. 10年 9月 6日(己巳) 卷15. 冊39. p.10. “御書講. 上與講官, 論許氏栖心淡泊之語, 與吾儒背馳. 上曰: “徒知寂然不動而不知感而遂通, 故其病如此. 又論: “閉關息旅, 以養微陽. 上曰: 只泛然靜坐而已, 則與坐禪參禪無異, 故必以敬爲主者此也.”

45) 『朝鮮王朝實錄』 肅宗. 11年 9月 4日(辛酉) 卷16. 冊39. p.43.

46) 『朝鮮王朝實錄』 肅宗. 11年 12月 7日(癸巳) 卷16. 冊39. p.51.

권고하였으며,⁴⁷⁾ 李頤命은 『綱目』 <漢成帝本紀>를 읽으면서 ‘한의 성제가 여색을 좋아하여 몸을 망쳤다’는 내용으로 숙종에게 강의를 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숙종이 숙의 金氏를 간선하고, 가장 좋아하는 張氏도 있었기 때문에 여색을 주의하라는 의미로 빗대어 얘기한 것이다.⁴⁸⁾ 당시 숙종이 독서력이 좋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숙종 13년(1687)의 독서는 1월 시작부터 중단되었으나 2월부터 재개하여 주강을 하지 못하면 석강이나 소대 및 야대로 대체하였다. 읽을 책은 『周易』이었으며, 참여한 경연관은 영의정 南九萬, 특진관 李之翼, 지경연사 呂聖齊, 시독관 洪受憲, 金萬吉, 金盛迪, 南致熏, 崔奎瑞 등 5명, 검토관 洪受憲, 설경 宋相琦 등이었다. 당시 독서일정을 보면 주강의 경우 1월 휴강, 2월 6, 10, 12, 14일 4회, 3월은 12, 20, 21, 25, 26, 27일 6회, 4월 12, 16, 17, 19, 20, 24, 26, 27, 28, 30일까지 총 10회, 5월 주강은 5회, 6, 7, 8월 3개월은 휴강하였고, 9월 5회, 10월 5회, 11월 9회, 12월은 1회로 마감하였으며, 가장 많은 독서일은 10회 실시한 4월이었다. 석강은 5월 2회, 11월 23, 24일 2회로 13년 한 해 총 4회 실시하였다. 소대 및 야대의 경우 1월 소대 2, 14, 22, 26일이며, 야대일은 5, 20, 28, 29일로 각 4회 실시하고, 2월 야대는 3, 18일 2회, 3월, 4월, 5월은 휴강하였다. 6월은 3, 8일 2회, 7월 19, 20일 2회 실시 후 8월도 휴강하였으며, 9월에는 1일 1회, 10월 29일 1회, 11월 27일 1회, 12월 소대 2회, 야대 1회였다. 숙종은 야대의 경우 경연관들에겐 술이나 안주를 내려 격려하기도 하였다. 동년 10월 29일 관원을 소대하여 술을 취하게 마시도록 하여 밤중에 파하였다라는 기록과 12월 18일 야대에서 옥당 관원에게 술을 하사하고 御製 絕句 1수에 대해서 入侍한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화답하여 올리도록 명하였다.⁴⁹⁾는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숙종 14년(1688)의 독서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주강의 경우 1월엔 하루도 열리지 않았으며, 26일 1회만 소대를 실시하였다. 2월은 6, 7, 14, 18, 19, 20일까지 6회로 부제학 崔錫鼎이 주로 참여하였다. 3월은 8, 9, 10, 11, 14일까지 5회, 4월은 4, 10, 11, 12일 4회를 끝으로 14년의 독서는 중단되었다. 그 원인은 4월 11일 교리 兪得一, 정언 金洪福, 지경연 呂聖齊, 영의정 南九萬 등과 경연 중에 宮庄의 폐단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숙종이 심하게 화를 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기분이 상했는지 독서를 중단해 버렸다.⁵⁰⁾ 그 여파가 계속되면서 숙종 15년(1689) 1월에도 경연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2월에야 주강이 6회 정도 실시되었다. 3월은 5, 17, 19, 20, 25, 27, 28일까지 7회로 동월 25일 주강에서 특진관 權說이 숙종에게 <繫辭>편을 읽을 때는 『易學啓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⁵¹⁾ 윤3월은 5, 9, 10, 17, 18, 19, 21일 7회로 17일 주강에서 權大載는 숙종에게 李玄逸이 『周易』에 조예가 깊다하여 추천하였다.⁵²⁾ 4월은 1, 4, 5, 11, 18일 5회, 5월의 주강은 11, 12, 13, 15, 19, 20, 21일 7회, 6월은 독서활동이 없었으며,

47) 『朝鮮王朝實錄』 肅宗. 12年 윤4月 18日(辛未) 卷17. 冊39. p.66.

48) 『朝鮮王朝實錄』 肅宗. 12年 윤4月 20日(癸酉) 卷17. 冊39. p.67.

49) 『朝鮮王朝實錄』 肅宗. 13年 12月 18日(壬戌) 卷18. 冊39. p.116.

50) 『朝鮮王朝實錄』 肅宗. 14年 4月 11日(癸丑) 卷19. 冊39. p.125.

51) 『朝鮮王朝實錄』 肅宗. 15年 3月 25日(壬辰) 卷20. 冊39. p.164.

52) 『朝鮮王朝實錄』 肅宗. 15年 윤3月 17日(甲寅) 卷20. 冊39. p.170.

7월은 21일 1회로 그쳤으며, 8월, 9월에는 주장, 소대가 없었다. 10월의 주장은 8회, 11월, 12월에는 주장이 없었다. 다만 12월 21일과 26일 2회 玉堂官을 소대하여 독서한 것이 전부다.

14년과 15년 경연에 참여한 인물은 특진관 權說, 吳始復, 柳命天, 시강관 李鳳徵, 시독관 李允修, 동지경연 權大載, 閔宗道, 지경연 吳始復, 대사간 權瑬, 대사헌 李玄逸, 검토관 沈季良, 李日翼 등이었다.

3.2 中期의 讀書

중기의 독서는 편의상 숙종 재위 16년부터 30년까지로 하였다. 이 기간에 숙종이 경연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독서했는지, 그 일정을 살펴보면 그가 읽은 책과 독서행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숙종은 재위 16년(1690)에도 전년도에 이어 『周易』을 계속해서 읽었다. 그가 이 책을 읽기 위해 실시한 경연은 1월에 5일 소대 1회, 2월은 휴강하고, 3월에는 주장 7, 8, 9, 10, 11, 16, 17, 18, 21, 22일 10회 실시하였으며, 소대는 없었다. 4월은 1, 19, 20, 25일 4회, 5월은 1, 15, 16, 17, 18 5회, 6월, 7월은 휴강하고, 8월에는 8일 하루만 실시하였다. 9월은 5, 6, 9, 10, 11일 5회, 10월 휴강, 11월은 2, 9, 17, 18, 22, 28일 6회, 소대는 6, 21일 2회, 12월은 소대만 13, 17, 18일 3회였다. 결국 1월, 2월, 6월, 7월, 10월, 12월 등 반년 간 주장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은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이다. 그 와중에 11월 2일에는 『周易』을 완독하였는데 독서기간을 보면 1685년 6월 9일에 시작하였으니 4년 3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차기 독서 자료로 『大學衍義』를 결정하였다.⁵³⁾ 숙종 17년(1691)에는 3강을 모두 실시하였는데, 조강과 석강은 1회성이었다. 월별로 보면 주장의 경우 1, 2월은 없었으며, 3월 4, 20, 21, 27일까지 4회, 5월 14, 21일 2회, 6월 4, 5일 2회, 7월, 윤7월, 8월 모두 실시하지 않았다. 9월은 5, 11, 12, 15, 16, 17, 18, 20, 21, 29, 30일 11회, 10월 4, 5, 12, 20, 21, 22일 6회, 11월 1, 2, 7, 12일 4회, 12월은 휴강하였다. 소대의 경우 1월 8, 9일 2회 실시하고, 2월, 3월은 휴강하였으며, 4월 21일 1회하고 5월 다시 휴강, 6월 2일 1회 독서하고, 7월 또 휴강, 윤7월은 1일 1회하고 8월 휴강, 9월 10, 17, 26일 3회, 10월 야대 1회, 11월 휴강하고, 12월은 16, 17, 18일 3회 실시하였다. 특이하게 휴강하는 날이 많았으나 3월 27일 석강과 4월 17일 조강을 오랜만에 1회씩 실시한 점이다. 참여한 경연관은 부제학 權璫 등의 옥당관과 이조참판 李玄逸, 참찬관 蔡彭胤 등이었다. 숙종은 이들과 9월 10일 소대에서 蔡彭胤이 지은 시(平生不識君王面, 一夢尋常繞玉墀: 평생에 임금 얼굴 모르고 지냈는데, 지척에서 옥지에 둘러 있는 꿈을 꾸었네)를 읊고, 蔡彭胤과 대화를 나눈 뒤 술을 내리며, “夜對는 私家の 부자간의 福과 같으니, 마음 놓고 실컷 먹고 마시도록 하라.” 하라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⁵⁴⁾ 독서 자료로 여전히 소대는 『綱目』,⁵⁵⁾

53) 『朝鮮王朝實錄』 肅宗. 16年 11月 2日(己丑) 卷22. 冊39. p.232.

주강은 『大學衍義』이었다. 숙종 18년(1692)의 주강은 1월 6일 1회, 2월은 휴강, 3월 11, 12, 16, 19, 21, 26, 27일 7회, 4월 1, 16, 30일 3회, 5월 1, 2, 21, 22, 29일 5회, 6월 1일 1회, 7, 8월 휴강하였으나 8월 27일 玉堂官과 대제학 權愈 등을 야대하여 ‘夜氣’를 글제로 詩를 짓도록 하고, 이어 술을 내렸다.⁵⁶⁾ 9월은 1, 2, 11, 12, 16일 5회, 10월 1, 21, 24 3회 한 뒤 11월, 12월 휴강하였고, 소대만 각 1회씩 실시하였다. 당시 읽은 책은 『綱目』으로 참여한 경연관은 시독관 洪塾, 沈仲良, 지경연 柳命天, 검토회관 趙滉, 참찬관 沈撥, 부제학 閔昌道, 무신 張希載 등이었다. 숙종 19년(1693) 1월은 경연이 없었고, 2월의 주강은 26, 27, 28, 29, 30일까지 연일 5회를 실시하였으며, 소대는 30일 1회 실시하였다. 3월의 주강은 4, 5, 6, 17, 18, 19, 20, 21, 22일까지 9회를 독서하였는데, 18일 주강에서는 경연관의 행동이 태만하다고 하여 문책하기도 하였다.⁵⁷⁾ 4월의 주강은 12, 17, 18, 24, 29, 30일 6회, 5월의 조강 18일 1회, 주강은 1, 18, 20, 21, 27, 28, 29일 7회, 6월은 주강 5, 6일 2회, 소대 20, 29일 2회 실시하고, 7월은 소대만 25일 1회였다. 8월은 휴강했으며, 9월의 주강은 11, 14, 15, 16, 20, 24, 25, 27, 28, 29일 10회, 9월 9일에는 소대하였는데, 중앙절이라 하여 숙종이 韻을 신하들에게 주어 五言이나 七言絶句를 짓도록 하고 차등있게 종이와 붓을 하사하였다.⁵⁸⁾ 10월의 주강은 16, 17, 18, 19일 4회, 11월의 주강은 1, 2, 6, 8, 9, 10, 11, 12, 28일 9회, 12월은 날씨관계로 독서를 하지 않았다. 숙종 20년(1694)에도 보편적인 독서를 실시하였다. 19년 12월부터 중단한 주강은 1월에 소대만 6일 하루 실시하고 중단하였으며, 2월에도 12일 1회만 독서하였다. 3월은 4, 5, 6, 7, 8, 10, 11, 25, 26일 9회, 4월은 24, 25, 28, 29, 30일 5회, 5월은 1, 13, 14, 28, 29일 5회, 윤5월은 4, 6, 9, 10, 11, 14, 15일 7회, 6월은 소대만 21일 1회, 7월도 소대만 2일 1회, 8월은 7, 8일 2회, 9월은 1, 2, 4, 29일까지 4회, 10월은 1, 3, 4, 5, 6, 8, 14, 18, 30일 총 9회, 27일 소대에서는 독서 후 술 한 잔씩 하였다. 11월은 8, 9, 11일 3회, 야대는 22, 23일 2회 실시하고 양일간 참여한 경연관(지경연사 申翼相, 시독관 宋相琦, 검토회관 趙大壽 등)에게 감귤과 배를 하사하였다. 12월은 휴강하였다. 사실상 재위 20년 초에는 숙종 자신이나 경연관들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못하여 독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숙종의 경우 자주 경연을 중단하자 좌의정 朴世采가 7월 2일 소대에서 며칠 내로 경연을 열도록 건의한 바 있다.⁵⁹⁾ 경연관들도 나태하여 경연준비에 소홀하였다. 숙종이 4월 10일 주강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경연관 중 지경연 權愈만 혼자 있었다. 숙종은 들어오도록 했으나 오지 않자 파면하도록 하였으며,⁶⁰⁾ 8월 7일 주강에서 좌의정 朴世采가 경연관들을 독서당 규정을 모방하여 경학을 강구하도록 하자는 건의를 하였다.⁶¹⁾ 이러한 사실을 보면 경연관들의 질서의식이 소멸되었음을 알 수

54) 『朝鮮王朝實錄』 肅宗. 17年 10月 11日(壬辰) 卷23. 冊39. p.254.

55) 『朝鮮王朝實錄』 肅宗. 17年 7月 2日(乙酉) 卷23. 冊39. p.248.

56) 『朝鮮王朝實錄』 肅宗. 18年 8月 27日(甲辰) 卷24. 冊39. p.269.

57) 『朝鮮王朝實錄』 肅宗. 19年 3月 18日(壬戌) 卷25. 冊39. p.277.

58) 『朝鮮王朝實錄』 肅宗. 19年 9月 9日(庚戌) 卷25. 冊39. p.287.

59)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7月 2日(戊辰) 卷27. 冊39. p.341.

60)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4月 10日(丁丑) 卷26. 冊39. p.298.

있다. 당시 경연에 참여한 인물은 좌의정 朴世采, 지경연 吳始復, 權愈, 朴泰尙, 柳尙運, 柳尙運, 申翼相, 동지경연사 李畬, 李秀彦, 참찬관 權璿, 시강관 宋相琦, 시독관 宋相琦, 검토관 鄭滸, 閔鎭厚, 趙大壽 등이었다. 숙종 21년(1695)에 실시한 주장과 소대를 보면, 주장의 경우 1월 22, 24, 25, 26일 4회, 2월 2, 4, 9, 22일 4회, 3월 4, 5, 7, 8, 10, 18, 19, 20, 21, 25, 26, 28일 12회로 동월 18일에는 오랜만에 朝講도 실시하였다. 4월 1, 2, 21, 22일 4회, 5월 15, 16, 18, 19, 26, 27일까지 6회, 6월 주장은 5일, 소대는 22일 각 1회, 7월 소대만 16, 17일 2회, 8월은 2일 1회, 9월 0회, 10월 2일 1회, 소대는 6, 10, 18일까지 3회 실시하였다. 경연을 중단하자 10월 4일 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려 경연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⁶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연은 실시하지 않고 소대만 6, 10, 18일 3회 실시하였다. 11월의 주장은 2, 4, 11, 12, 21, 22, 25, 27일까지 8회, 12월에는 휴강하고, 소대만 10, 14, 16, 17, 19일 5회 실시하였다. 1년간 조강은 1회, 주장은 42회, 소대 및 야대는 14회가 전부였다. 이와 같은 독서일정은 숙종이 점차적으로 독서에 태만해짐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참여한 경연관들은 영경연 南九萬, 지경연 申翼相, 朴泰尙, 동지경연 李世白, 특진관 尹趾善, 지평 李世載, 정언 李喜茂, 참찬관 趙泰采, 尹世紀, 朴世燾, 시독관 尹德駿, 李廷謙, 閔鎭厚, 朴權, 南正重, 鄭滸, 검토관 趙泰采, 趙大壽, 승지 俞得一 등이었다. 숙종은 다음해(재위 22년; 1696)에도 계속해서 『大學衍義』를 읽었다. 그가 독서하기 위한 주장과 소대의 일정을 보면, 1월 16일 야대만 1회, 2월의 주장은 19, 20, 26, 27, 28일 5회, 3월 9, 10, 11일 3회, 4월 10, 18, 20, 22, 27일 5회, 5월은 주장, 소대 모두 없었다. 6월은 5, 6, 7, 28일 4회 실시한 바 7월은 휴강하고, 소대만 3, 22, 23일 3회 실시하고, 8월은 20, 24일 2회, 9월은 6, 10, 12, 14, 15, 16, 18, 20, 21, 30일까지 11회 실시하였으며, 오랜만에 9월 19일 조강도 열어 대신 및 玉堂官들과 함께 독서하였다. 10월 1, 2, 12, 20일 4회, 11월과 12월은 휴강하였다. 1년 중 주장을 하지 않은 달은 1월, 5월, 7월, 11월, 12월이며, 소대 및 야대는 1월 1회와 7월 3회 밖에 없었다. 가장 많은 독서를 한 달은 11회를 한 9월이다. 숙종 23년(1697)은 『大學衍義』를 완독한 해이다. 1월 26일 밤에 소대만 1회, 2월에도 주장은 없었으며, 소대 2, 8, 26일 3회, 3월의 주장은 6, 7, 11, 12, 21일 5회 실시하고, 소대는 없었다. 윤3월의 주장은 2, 4, 18, 21, 22, 27일 6회로 시독관 朴權, 장령 柳重茂, 수찬 趙泰東 등과 함께 하였다. 동월 27일 드디어 숙종은 『大學衍義』를 완독하였다. 다음 읽을 책으로 『聖學輯要』를 선정하여 4월 11, 17, 18, 25일 4회를 읽었다. 강관 李健命은 선조 때 李珥가 친히 토론하는 것처럼 봐야 한다고 권하였다.⁶³⁾ 5월의 주장은 15, 18, 20일 3회, 6월은 주장과 소대가 없었으며, 7월의 주장은 4, 22, 23, 27 4회, 8월의 주장은 6, 29일 2회, 9월은 6일 1회, 10월의 주장은 17, 21일 2회 실시되었다. 10월 21일 주장에서는 『聖學輯要』를 강독하면서 ‘理氣說’을 주제로 토론하였다.⁶⁴⁾ 11, 12월은 휴강하였으며, 소대만 10, 11, 19일

61) 『朝鮮王朝實錄』 肅宗. 20年 8月 7日(壬寅) 卷27. 冊39. p.343.

62) 『朝鮮王朝實錄』 肅宗. 21年 10月 4日(癸巳) 卷29. 冊39. p.397.

63) 『朝鮮王朝實錄』 肅宗. 23年 4月 11日(庚申) 卷31. 冊39. p.454.

64) 『朝鮮王朝實錄』 肅宗. 23年 10月 21日(戊辰) 卷31. 冊39. p.472.

3회 실시하였다. 숙종이 읽은 『大學衍義』는 재위 16년 11월부터 시작하여 23년 윤3월에 완독하였으므로 6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 『聖學輯要』의 경우 李珣의 작품으로 숙종 6년(1680)에 吳道一이 『綱目』은 卷帙이 많으므로 잠시 중단하고 이 책을 읽도록 추천한 책이었다. 그러나 숙종은 治亂과 安危가 담겨져 있는 역사책이니 중단할 수 없다하여 계속해서 『綱目』을 읽어 온 것이다.⁶⁵⁾ 『聖學輯要』를 독서과목으로 선정한 숙종은 몇 개월간 독서를 중단하였다. 이듬해인 숙종 24년(1698)에 실시한 독서 일정은 1월에 주강은 휴강하고, 소대만 10, 16, 17, 19, 21, 22, 27일까지 7회 실시하였으며, 2월에도 휴강하고 소대만 4, 6, 7, 13, 26, 29일 6회 실시하였다. 3월의 주강은 24일 1회, 소대는 8, 10, 14, 18, 21일 5회, 4월의 주강은 3, 12, 13, 17, 18, 19, 21일까지 7회, 소대 4일 1회, 5월의 주강은 1, 2, 6, 17, 21, 22일까지 6회, 6월은 주강과 소대가 없었으며, 7월은 소대만 21, 24일 2회, 8월의 주강은 9, 10, 11일 3회, 9월은 1, 16, 26일 3회, 10월 9, 18일 2회하고, 11, 12월은 휴강하였다. 책은 『聖學輯要』와 『宋鑑』을 병행하였는데 『宋鑑』의 경우 1698년 4월 4일 소대에서 읽기 시작하였다.⁶⁶⁾ 함께한 경연관은 시독관 趙泰采, 趙泰耆, 시강관 金時傑, 검토관 尹趾仁, 趙大壽, 수찬 閔震炯, 참찬관 李墩 등이었다. 숙종 25년(1699)에는 아주 부실한 독서였다. 독서일정을 보면, 주강의 경우 1월 주강 휴강, 소대 7일과 9일 2회, 2월은 주강만 28일 1회, 3월도 8일 주강 1회, 4월은 1, 3, 12, 13, 27일 5회, 5월 5, 25일 2회, 6월 6, 9일 2회, 7월은 없었다. 8월 7일 1회, 9월은 3, 11, 12, 14일까지 4회, 조강과 석강은 18일 각 1회 실시되었다. 10월엔 휴강하였으며, 11월의 주강은 11일 1회, 12월은 소대만 14, 21, 26일 3회 실시하였다. 1년 동안 주강은 17회, 조강과 석강 각 1회, 소대는 1월 2회와 12월 3회 이루어졌다. 이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했다 해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보다 못한 兪命凝은 경연에서의 강독은 걸치레에 불과하다⁶⁷⁾고 지적한 바 있다. 책은 『聖學輯要』와 『皇明通紀』를 읽었다. 숙종 26년(1700) 1월에는 휴강하였으며, 2월은 27일 검토관 崔昌大 등과 하루 주강을 실시하였다. 3월의 주강은 9, 26일 2회, 4월의 주강은 13, 23일 2회, 5월은 휴강, 6월 소대 21, 30일 2회, 7월 주강 27, 28, 29일 3회 실시하고 8, 9월은 휴강하였다. 10월 주강은 2회로 2일 참찬관 南正重과 함께하고, 4일의 주강에서는 領敦寧 崔錫鼎이 『聖學輯要』를 거의 완독했으므로 『春秋』와 『禮記』를 추천하였다. 『春秋』는 朴世采가 정자와 주자의 설을 모아 편집한 『春秋補傳』을, 『禮記』는 大文이 없고 陳氏가 주를 단 大畧이 있는데, 최석정 본인이 正文을 취하여 잘못된 곳을 바로잡아 5권으로 엮었으며, 박세채가 교정하였으므로 교서관에서 간행하여 읽도록 한 바 있다.⁶⁸⁾ 11월, 12월 주강이 없었으며, 12월 16일 하루만 소대를 홍문관 제학 李畬와 함께 하였다. 숙종 27년(1701)에는 1월 9일 시독관 尹趾仁 등의 옥당관을 소대하여 독서하였으며, 2월도 27일 시독관 李觀命 등을 소대하여 독서하였다. 3월 주강은 4, 9, 10, 21, 22, 26, 27,

65) 『朝鮮王朝實錄』 肅宗. 6年 8月 3日(己未) 卷10. 冊38. p.469.

66) 『朝鮮王朝實錄』 肅宗. 24年 4月 4日(戊申) 卷32. 冊39. p.488.

67) 『朝鮮王朝實錄』 肅宗. 25年 5月 12日(辛巳) 卷33. 冊39. p.530.

68) 『朝鮮王朝實錄』 肅宗. 26年 10月 4日(癸亥) 卷34. 冊39. p.578.

28일까지 8회, 4월엔 12일 석강, 18일엔 시독관 崔昌大 등과 함께 조강, 주장, 석강 등 3강을 모두 실시하였다. 그 밖에 주강을 계속해서 19, 21, 22, 28일까지 모두 5회를 실시하였다. 5월의 주강은 16, 22, 27, 28, 29일 5회로 검토관 李觀命, 지경연 李畬, 시독관 李坦, 특진관 閔鎭厚 등이 참여하였으며, 6월 주장 1일 하루만 실시하였는데 이 날 『聖學輯要』를 완독하였다.⁶⁹⁾ 7월은 소대 14일 1회, 8, 9, 10월은 주장, 소대 등을 열지 않았다. 11월 소대 10, 17일 2회, 12월은 휴강하면서 재위 27년의 독서는 마무리되었다. 『聖學輯要』는 23년 4월부터 읽기 시작했으므로 4년 2개월이 소요되었다. 이 책 다음으로 『春秋集傳』을 선정하여 숙종 28년(1702)부터 독서에 들어갔다. 월별 독서일정은 1월엔 소대 19일 1회, 주장 29일 1회, 2월 주장 9, 10, 11일 3회, 3월 주강은 6, 7, 8, 9, 12, 13, 17, 18일까지 8회, 4월의 주강은 16, 17, 21, 22, 29, 30일까지 6회, 5월 석강 12일 1회, 주장 12, 19, 21, 26, 27, 28일까지 7회, 6월은 주장 2일, 16일 2회, 윤6월 소대만 9, 18, 19, 21, 22, 24, 26, 27일 8회, 7월, 8월은 경연이 없었으며, 9월엔 주장 4, 11, 12일까지 3회, 10월은 19일 주장 1회, 11월 6일 주장 1회, 12월 소대만 11, 13일 2회를 실시하였다. 숙종 28년에 읽은 책은 『春秋集傳』과 12월 소대에서 읽은 『東國通鑑』이었다.⁷⁰⁾ 당시 함께한 경연관은 金昌集, 동지경연 趙泰采 등과 함께 처음으로 『春秋集傳』을 강독하였으며,⁷¹⁾ 그 후 참찬관 李國芳, 金鎭圭, 시독관 李喜茂, 시강관 李觀命, 李晩成, 지경연 李濡 등이 함께하였다. 숙종 29년(1703)에도 독서에 열중하지 못했다. 1년간의 독서일정을 보면, 1월엔 주장이 없었고 소대만 6, 17일 2회 실시하였으며, 2월에도 주장이 없었다. 3월의 주강은 4, 6, 7, 10, 14, 26, 27일 7회, 석강 14일 1회, 4월 주강은 3, 4, 19, 20, 27, 28일까지 6회, 5월 주장 13, 14 2회, 6월에는 없었다. 7월은 소대 5일 1회, 주강은 24, 25일 2회, 8월의 주강은 7, 8일 2회 이후 9월과 10월엔 경연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11월이 되어 11일 소대 1회, 주강은 18일, 25일, 26일 3회, 12월은 소대만 7, 13일 2회 실시하였다. 재위 29년엔 1월부터 12월 중 3, 4월이 7, 6회로 가장 많은 독서율을 보였으나 9월과 10월은 전혀 독서하지 않았다. 당시 실록에서는 “임금이 몇 달 동안 경연에 나가지 않으니 중외에서 근심하고 한탄하였는데 이때에 비로소 開講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⁷²⁾ 숙종이 읽은 책은 『春秋』와 『東國通鑑』이었다. 3월 7일엔 『春秋』 14년조 ‘夏五’ 부분에서 月을 쓰지 않은 것을 두고 참찬관 金鎭圭와 토론하였으며,⁷³⁾ 12월 7일 소대에서는 『東國通鑑』의 ‘고구려 안시성’의 내용과 三田渡의 碑文 등으로 시독관 李晩成과 토론한 바 있다.⁷⁴⁾ 이 책으로 토론에 참여한 경연관은 金鎭圭, 李晩成 외에 지경연 金昌集, 시독관 李觀命, 지경연 李濡, 시독관 吳命峻, 權尙游 등이다. 다음 해인 숙종 30년(1704)에도 독서 실적이 좋지 못하였다. 1, 2월은 휴강하였으며, 3월의 주강은 9일, 21일 2회, 4월의 주장 3, 21, 22, 23, 28일 5회, 5월 주장

69) 『列聖進講冊目錄』 <登極後經筵進講冊子次第>

70) 『朝鮮王朝實錄』 肅宗. 28年 12月 11日(丁亥) 卷37. 冊39. p.703.

71) 『朝鮮王朝實錄』 肅宗. 28年 1月 29日(辛亥) 卷36. 冊39. p.673.

72) 『朝鮮王朝實錄』 肅宗. 29年 11月 18日(己未) 卷38. 冊40. p.56.

73) 『朝鮮王朝實錄』 肅宗. 29年 3月 7日(壬子) 卷38. 冊40. p.9.

74) 『朝鮮王朝實錄』 肅宗. 29年 12月 7日(戊寅) 卷38. 冊40. p.60.

29일 1회뿐이었다. 6월 주장 3일, 8일 2회, 소대는 20, 22, 24일 3회가 전부였다. 6일에는 숙종이 경연에 잘 나가지 않으므로 閔震元이 8조목의 상소를 올렸다. 그 내용 중 첫 번째에 경연에 부지런히 나갈 것이란 내용이 들어 있다.⁷⁵⁾ 7월 소대만 13, 19일 2회, 8월은 주장만 29일 1회, 9월은 주장을 12, 13, 14, 20, 21, 26일까지 6회 실시하였으며, 10월도 주장 6, 7, 8, 13, 14, 21일 6회, 11월 주장 29일 1회, 12월은 휴강에 들어갔다.

이상으로 중기의 독서일정과 숙종이 읽은 책 및 함께한 경연관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서 이력이 초기에 비해 점차적으로 저조했다고 볼 수 있다.

3.3 末期의 讀書

말기의 독서일정은 숙종 31년부터 45년까지로 나누었다. 숙종은 재위 31년(1705) 들어서면서 독서력이 더욱 하향되었다. 일정별로 보면, 주장의 경우 1월 휴강, 2월 13, 21일 2회, 3월 11일 하루, 4월 2, 17일 2회, 5월, 6월은 휴강, 7월 주장은 휴강하고 13일 소대만 하루 실시하는 등 점차적으로 주장의 횟수가 줄어가고 있다. 8월은 24, 29, 30일 3회, 9월은 12, 13, 14, 17일까지 4회, 10, 11월은 신병으로 인하여 경연이 중단되었으며, 12월도 휴강하고 11일 소대만 하루 시독관 吳命峻과 함께 하였다. 숙종 32년(1706)에도 1월에는 휴강하였으며, 소대만 7, 18, 20일까지 3회, 2월도 휴강에 들어갔으며, 3월 주장은 21, 22일 2회, 4월은 주장만 27, 28, 29일 3회, 5월 주장은 1, 13, 14, 16, 17, 21, 22, 26, 27, 28일 10회로 근래 가장 많은 횟수를 보였다. 6월에 휴강하고 소대만 2일 하루 실시하였으며, 7월도 휴강, 소대만 20일 하루, 8월 휴강하였다. 9월 주장은 1, 2, 3, 5, 25, 26, 27, 28일까지 총 8회 실시하였다. 10월 주장은 7, 8, 20, 22일 4회, 11월은 17, 18, 23, 24일 4회, 12월도 휴강하였으며, 소대만 17, 21일 2회 실시하였다. 함께한 경연관은 시강관 南就明, 시독관 吳命峻, 任守幹, 동지사 李寅燁, 옥당관 朴鳳齡, 특진관 閔鎮厚 등이었으며, 읽은 책은 『春秋』였다. 숙종 33년(1707)에도 독서일정을 보면, 1월 소대 12일 1회, 2월은 주장 13일 1회, 3월은 없었으며, 4월은 주장 17일 1회, 5월 주장은 12, 13, 18일 3회, 6월은 휴강, 7월엔 소대만 6일 1회, 8월 휴강, 9월 주장 11, 13, 14일 3회, 10월 주장은 1일, 16일 2회, 11월 주장은 4, 5, 7, 9, 19, 23일 6회, 12월은 휴강하였다. 주장을 실시하지 않은 달은 1월, 3월, 6월, 7월, 8월, 12월로 6개월은 독서하지 않았으며, 독서를 했더라도 2월과 4월은 1회 정도인 것을 보면 아주 저조한 독서로 나타났다. 함께한 경연관은 영의정 崔錫鼎, 지사 李寅燁, 趙相愚, 특진관 閔鎮遠, 참찬관 李喜茂, 시독관 趙泰億, 李觀命, 吳命峻, 權詹, 李世最, 崔昌大, 李肇, 검토회관 李大成, 宋正明 등이다. 숙종 34년(1708)에는 주장보다는 소대 위주로 독서하였다. 그 일정은 1월 소대 16, 17, 19, 20, 21, 22, 23, 24, 26일 9회, 2월 4, 5, 7, 26, 27, 28, 29, 30일까지 8회, 3월 소대는 10일 27일 2회, 윤3월의 주장은 2, 3, 4, 5, 6, 14, 15,

75) 『朝鮮王朝實錄』 肅宗. 30年 6月 6日(甲戌) 卷39. 冊40. p.89.

18, 19일 9회와 석강을 오랜만에 3일과 18일 2회 실시하였다. 4월, 5월은 정지하였으며, 6월은 소대 2, 7, 21일 3회, 7월은 소대만 17, 19일 2회, 8월엔 19일 주장만 1회 하였다. 9월 주장은 18, 19, 20, 21, 27, 28일 6회, 10월은 소대 14일 1회, 주장은 19, 22일 2회, 11월 주장은 19일 1회, 소대 29일 1회, 12월은 경연은 없었고 소대만 12, 13, 26일 3회 실시하였다. 이상 34년에는 소대는 1월과 2월에 치중하였으며, 주장은 9월에 가장 많은 횟수를 보였다. 이 해에 숙종이 읽은 책은 『唐鑑』과 송시열의 『節約通編』이었다. 이 책으로 3월 27일 召對에서 『節約通編』을 강론하면서 검토관 任守幹과 시강관 李觀命 등과 열띤 토론을 하였다.⁷⁶⁾ 당시 경연에 참여한 경연관은 부제학 趙泰耆, 검토관 李大成, 任守幹, 李台佐, 沈壽賢, 시독관 宋正明, 시강관 李觀命, 趙泰億 등이다.

숙종 35년(1709) 1월에는 16일과 27일 2회였다. 1월 16일 소대에서 검토관 丁道復이 ‘膏肓(고황)’을 ‘膏肓(고맹)’으로 읽었다며 당시 사람들이 ‘膏肓檢討官’이라고 놀렸다 한다.⁷⁷⁾ 27일 소대는 시강관 趙泰億과 함께하였다. 1월 18일에는 동부승지 李觀命이 상소에서 숙종이 경연에서 읽을 최석정의 『禮記類編』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렸다. 즉, 이 책은 마음대로 수정하고 註를 붙여 朱子の 의도와 다르게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 후 2월 주장은 4, 6, 20, 27, 28일 총 5회로 시강관 吳命恒, 李眞儉 등과 함께하였으며, 3월 소대는 2일 교리 吳命恒과 주장은 9, 18, 19, 20일 4회 실시하고 석강은 9일 검토관 李正臣과 함께 강론하였다. 19일에는 숙종이 잇달아 주장과 석강을 열어 독서에 전념하자 열심히 학문하는 뜻이 지극하다고 평을 내리기도 했다.⁷⁸⁾ 이 달 21일 『列聖進講冊目錄』 <登極後經筵進講冊子次第>에서는 『春秋集傳』을 완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1702년 1월 29일에 시작하였으므로 7년 2개월여 동안 읽은 것이다. 그 후 독서자료로 『禮記』를 선정하여 4월 11일과 21일 2회 시독관 李世瑾, 지경연사 趙相愚 등이 참여하여 읽었다. 『禮記』를 읽으면서 앞서 비판한 최석정의 『禮記類編』을 참고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⁷⁹⁾ 이 후 『禮記』의 독서는 완독했다는 근거가 없다. 5월에 경연은 없었으나 경연에서 읽을 책인 최석정의 『禮記類編』에 대해서 논란이 다시 거론되었다.⁸⁰⁾ 6월 소대는 6일 시독관 宋正明과 글의 내용을 논의하고, 23일엔 검토관 林象德과 하였으며, 7월 소대는 2일 검토관 權詹, 14일은 검토관 吳命恒과 함께 강독하였다. 8월에는 휴강하였고, 9월 주장은 1, 2일 지경연사 姜錕, 11, 18일 시독관 李眞儉과 함께 책을 읽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17일 조강을 열어 시독관 李世最가 함께하였다. 10월은 주장 6일 하루 하고 11월, 12월은 휴강하였다. 숙종 36년(1710)에는 1월부터 4월까지 경연 및 소대를 중단하였다. 그 이유는 숙종이 결핵과 증기에 시달렸기 때문이다.⁸¹⁾ 이로 인해 장기간 휴강하다가 5월 11일에야 비로소 소대를 시작해서 15일, 17일 시독관 李澤과 함께 강독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76) 『朝鮮王朝實錄』 肅宗. 34年 3月 27日(甲戌) 卷46. 冊40. p.292.

77) 『朝鮮王朝實錄』 肅宗. 35年 1月 16日(戊子) 卷47. 冊40. p.315.

78) 『朝鮮王朝實錄』 肅宗. 35年 3月 19日(庚寅) 卷47. 冊40. p.324.

79) 『朝鮮王朝實錄』 肅宗. 35年 4月 11日(壬子) 卷47. 冊40. p.324.

80) 『朝鮮王朝實錄』 肅宗. 35年 5月 16日(丙戌) 卷47. 冊40. p.327.

81) 『朝鮮王朝實錄』 肅宗. 36年 2月 15日(庚戌) 卷48. 冊40. p.343.

고통에 시달렸다. 6월 20일 지평 윤봉조의 상소에 의하면, “근년 이래로 玉候가 많이 편찮으셔서 萬機에 싫증이 나실 것입니다.”⁸²⁾ 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6월, 7월에도 경연은 없었으며, 윤7월 소대 4, 17일 2회, 주장 25일 하루 모처럼 시독관 鄭栻과 강독하였다. 윤7월 4일 소대에서 숙종은 책을 펴기도 전에 화를 내며 홍문관의 경연관 부교리 洪禹瑞, 수찬 李澤, 李喬岳 3명을 삭탈관직하고 문외출송하였다. 그 원인은 시골 선비인 郭景斗가 올린 상소의 내용이 지극히 간사하므로 숙종이 無益하다고 결단을 내렸는데, 이들은 당론을 이용하여 郭景斗를 두둔했다는 것이다.⁸³⁾ 郭景斗의 상소내용은 알 수 없으나 숙종이 경연관들에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건강문제로 의기소침해진 느낌이 든다. 8월에도 주강을 20일 하루만 실시했으며, 9, 10, 11, 12월까지 경연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숙종 36년 12월 11일 경연을 열지 않자 修撰 李廷濟가 때때로 경연관을 불러 경전의 뜻을 말씀하시고, 시사를 강론하고 토론하면서 소통의 기회를 열자는 상소를 올렸다.⁸⁴⁾ 그러나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음 해인 1월 3일부터 옥당관을 불러 독서하기에 이르렀다. 숙종 37년(1711)에는 『節酌通編』을 완독한 해이나 경연은 거의 실시하지 않고 소대 위주로 독서를 하였다. 월별로 보면, 1월에 소대 3, 9, 16, 21, 25일까지 5회, 2월 소대 2, 11, 19, 28일 4회, 3월 소대 11, 13, 26일 3회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소대만을 실시하자 4월 5일 지평 兪命威이 소대는 한 것 文具를 따르는데 지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⁸⁵⁾ 4월도 소대만 18일, 20일 2회, 5월도 22일 1회였고, 6월은 휴강하였다. 7월에도 소대만 4, 13, 14, 16일 4회 실시하면서 『節酌通編』을 완독하고 다음 책은 『名臣奏議』로 결정하였다.⁸⁶⁾ 오랜만에 8월부터 주장이 실시되었다. 8월 주강은 23일 1회였으나 모처럼 주장에 나와 독서하므로 領議政 徐宗泰를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24일 소대는 副提學 柳鳳輝와 함께하였다. 9월 주강은 1, 3, 4일 3회 실시하고, 10월 주장 1일 교리 鄭栻과, 2일 특진관 趙泰老와 소통하였으며, 소대는 29일 1회 실시하였다. 11월 소대는 2, 3, 4일 3회로 교리 洪致中과 같이 독서하고 12월은 휴강하였다. 숙종 38년(1712) 1월 소대는 17일 하루 열렸으며, 그 날 독서하면서 講官 洪致中, 李世瑾 등과 “復讎雪恥”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2월은 휴강하고, 3월의 주강은 6, 7, 26일 3회, 4월의 주강은 17, 21, 22, 23일 4회, 5월 주강은 16, 27, 28, 29일까지 4회로 副提學 李健命 등과 함께하였다. 6월은 소대만 11, 14, 23일 3회, 7월 소대는 5일 부응교 權詹과, 13일 교리 李夏源과, 24일 교리 吳命恒 등과 독서하였으며, 8월은 소대는 없었고 주장만 24일 교리 吳命恒과 함께 하였다. 9월 역시 주장만 14, 15, 26, 28일 4회 부응교 申鐔 등과 실시하고, 10월 10일 1회 실시하였으며, 11월 주강은 11, 12일, 19일 3회, 12월은 소대만 12, 18일 부수찬 李喬岳, 승지 李世最 등과 독서하고 정세를 논하였다. 숙종 39년(1713)에는 독서를 마지막으로 한 해이다. 주강은 일부에 불과했으며, 주로 소대 위주로 실시하였다. 월별로 보면, 1월 소대 2, 22, 26일

82) 『朝鮮王朝實錄』 肅宗. 36年 6月 20日(甲寅) 卷48. 冊40. p.356.

83) 『朝鮮王朝實錄』 肅宗. 36年 윤7月 4日(丁酉) 卷49. 冊40. p.361.

84) 『朝鮮王朝實錄』 肅宗. 36年 12月 11日(辛未) 卷49. 冊40. p.380.

85) 『朝鮮王朝實錄』 肅宗. 37年 4月 5日(癸亥) 卷50. 冊40. p.392.

86) 『朝鮮王朝實錄』 肅宗. 37年 7月 16日(癸卯) 卷50. 冊40. p.404.

3회, 2월 소대 4일 1회, 주강은 19, 22일 2회, 3월의 주강은 총 3회로 14, 16, 21일이었으며, 당시 홍문록 사건으로 吳命恒이 파직되는 등⁸⁷⁾ 4월까지 경연이 없었으며, 5월은 소대 11, 19, 22일 3회, 주강 14, 15, 16일 3회 실시되었다. 윤5월 주강은 5, 8, 9, 10, 12일 5회, 6월은 소대만 9, 21일 2회로 부제학 鄭澐와 함께하고, 7, 8월에는 모두 휴강하였다. 9월은 5일 소대 1회와 주강 2, 3, 4, 13, 14, 17, 18, 19일 8회를 마지막으로 독서가 중단되었다. 아쉽게도 숙종은 신병으로 인해 더 이상 경연을 열어 독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숙종 39년을 마지막으로 같이한 경연관들은 부제학 鄭澐, 權尙游, 교리 金樛, 洪禹瑞, 부교리 李喬岳, 李澤, 洪致中, 지사 閔鎮厚, 趙泰采, 수찬 金樛, 특진관 尹就商, 申思喆, 黃龜河, 趙泰耆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名臣奏議』였다.

이상 45년간의 독서일정을 初期, 中期, 末期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동안 숙종이 읽었던 책을 <表>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表 2> 肅宗의 讀書資料

<經筵資料>	開讀年月日	完讀年月日
論語	甲寅(即位年, 1674) 12月 20日	丙辰(2年, 1676) 3月 20日
孟子	丙辰(2年, 1676) 3月 20日	丁巳(3年, 1677) 9月 15日
中庸	丁巳(3年, 1677) 9月 24日	戊午(4年, 1678) 4月 26日
書傳	戊午(4年, 1678) 5月 1日	庚申(6年, 1680) 10月 11日
詩傳	庚申(6年, 1680) 10月 16日	癸亥(9年, 1683) 4月 11日
心經	癸亥(9年, 1683) 4月 19日	乙丑(11年, 1685) 6月 5日
周易	乙丑(11年, 1685) 6月 9日	庚午(16年, 1690) 9月 11日
大學衍義	庚午(16年, 1690) 11月 2日	丁丑(23年, 1697) 3月 27日
聖學輯要	丁丑(23年, 1697) 4月 11日	辛巳(27年, 1701) 6月 1日
春秋集傳	壬午(28年, 1702) 1月 29日	乙丑(35年, 1709) 3月 21日
<召對資料>		
綱目	乙卯(1年, 1675) 1月 3日	戊寅(24年, 1698) 3月 15日
宋鑑	戊寅(24年, 1698) 4月 9日	己卯(25年, 1699) 12月 14日
皇明通紀	己卯(25年, 1699) 12月 21日	壬午(28年, 1702) 閏6月 21日
明紀編年	己卯(25年, 1699) 12月 21日	壬午(28年, 1702) 閏6月 27日
東國通鑑	壬午(28年, 1702) 12月 11日	戊子(34年, 1708) 1月 26日
唐鑑	戊子(34年, 1708) 2月 4日	戊子(34年, 1708) 2月 30日
節約通編	戊子(34年, 1708) 3月 10日	辛卯(37年, 1711) 7月 16日
名臣奏議	辛卯(37年, 1711) 8月 24日	未講

위의 <表 2>에 나타난 독서자료를 開讀부터 完讀하기까지의 기간을 보면, 『論語』의 경우 『朝鮮王朝實錄』에서는 시작일이 즉위년(1674) 12월 27일, 완독일은 2년(1676) 3월 2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列聖進講冊目錄』에서 즉위년 12월 20일부터 읽기 시작하여 숙종 2년 3월 5일에 완독한 것으로

87) 『朝鮮王朝實錄』 肅宗. 39年 3月 21日(戊戌) 卷53. 冊40. p.491.

나타나 있다. 세자시절에 읽었던 다음 장 제3권 <八佾篇>부터 읽은 관계로 완독까지의 독서 기간은 1년 2개월 정도 걸렸다. 『孟子』는 숙종 2년(1676) 3월 20일 시작하여 3년(1677) 9월 15일 완독하였으므로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中庸』은 1년 6개월, 『書傳』은 2년 5개월, 『詩傳』은 2년 6개월, 『心經』 2년 2개월, 『周易』 5년 3개월, 『大學衍義』 6년 4개월, 『聖學輯要』 4년 2개월, 『春秋集傳』 7년 2개월이 소요되었다. 소대의 과목으로는 『綱目』 24년 2개월, 『宋鑑』 1년 8개월, 『皇明通紀』와 『明紀編年』은 2년 7개월, 『東國通鑑』 5년 1개월, 『唐鑑』은 26일, 『節約通編』 3년 4개월이며, 마지막으로 『名臣奏議』는 완독하지 못하였다. <表 2>에 작성된 책 외에도 숙종은 『禮記』를 읽었다. 숙종 35년(1709) 『春秋集傳』을 완독한 후 독서자료로 『禮記』를 선정하여 4월 11일과 21일 2회 시독관李世瑾, 지경연사 趙相愚 등이 참여하여 읽었다는 기록과 『禮記』를 읽으면서 앞서 비판한 최석정의 『禮記類編』을 참고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⁸⁸⁾는 기록 등으로 보아 숙종은 『禮記』도 읽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禮記』를 완독했다는 근거가 없다. 이상 숙종은 45년간 경연에서 『禮記』를 포함하여 총 11종의 책과 소대에서 8종의 책을 읽었다. 이 중 주장에서 가장 오래도록 독서한 책은 『春秋集傳』(7년 2개월), 『大學衍義』(6년 4개월), 『聖學輯要』(4년 2개월)순이며, 소대에서는 『綱目』(23년 2개월), 『東國通鑑』(5년 1개월), 『節約通編』(3년 4개월) 순이다.

4. 讀書回數分析

4.1 三講

숙종의 경연은 조강, 주장, 석강 등 3講을 실시하려고 계획은 세웠으나 실제 조강, 석강은 거의 실시하지 못했다.

<表 3> 三講年月別回數(주강, []조강, < >석강)

年度\月	1	2	3(윤)	4(윤)	5(윤)	6(윤)	7(윤)	8(윤)	9	10	11	12	計	累計
즉위												1	1	1
1	11	7	4	8	5(5)	0	0	0	5	3	5	0	53	54
2	8	6	2	9	8	0	0	0	3	1	4	0	41	95
3	6	8	4	5	8	1	2	6	9	10	3	1	62	157
4	7	0	0	0	1	0	0	0	0	1	0	0	9	166
5	1	2	7	5	5	2	1	2	3	5	3	0	36	202

88) 『朝鮮王朝實錄』 肅宗. 35年 4月 11日(壬子) 卷47. 冊40. p.324.

朝鮮朝 經筵에서 肅宗의 讀書歷 考察

月 年度	1	2	3(윤)	4(윤)	5(윤)	6(윤)	7(윤)	8(윤)	9	10	11	12	計	累計
6	2	4	0	0	2	9	0	4(6)	1<1>	9	0	0	38	240
7	0	0	7	2	3	0	3	3[1]	8	15<1>	2	0	45	285
8	6	6	0	1	7	2	1	6	4	2	3	1	39	324
9	4	2	8	12[1] <1>	2	2(0)	6	7	4	0	0	0	49	373
10	0	0	0	0	0	0	0	4	3	0	0	0	7	380
11	0	0	5	8	8	3	0	0	3	0	0	0	27	407
12	0	1	1	3(9)	5	0	6	0	6	6	7	0	44	451
13	0	4	6<1>	10	5<2>	0	0	0	5	5	9<2>	1	50	501
14	0	6	5	4	0	0	0	0	0	0	0	0	15	516
15	0	6	7(7)	5	7	0	1	0	0	8	0	0	41	557
16	0	0	10	4	5	0	0	1	5	0	6	0	31	588
17	0	0	4<1>	[1]2	2	2	0(2)	0	11	6	4	0	35	623
18	1	0	7	3	5	1	0	0	5	3	0	0	25	648
19	0	5	9	6	[1]7	2	0	0	10	4	9	0	53	701
20	0	1	9	5	5(7)	0	0	2	4	9	3	0	45	746
21	4	4	[1]12	4	6	1	0	1	0	1	8	0	42	788
22	0	5	3	5	0	4	0	2	[1]11	4	0	0	35	823
23	0	0	5(6)	4	3	0	7	2	1	2	0	0	30	853
24	0	0	1	7	6	0	0	3	3	2	0	0	22	875
25	0	1	1	5	2	2	0	1	4[1] <1>	0	1	0	19	894
26	0	1	2	2	0	0	3	0	0	2	0	0	10	904
27	0	0	8	[1]5 <2>	5	1	0	0	0	0	0	0	22	926
28	1	3	8	6	6<1>	2(0)	0	0	3	1	1	0	32	958
29	0	0	7<1>	6	2	0	2	2	0	0	3	0	23	981
30	0	0	2	5	1	2	0	1	6	6	1	0	24	1005
31	0	2	1	2	0	0	0	3	4	0	0	0	12	1017
32	0	0	2	3	10	0	0	0	8	4	4	0	31	1048
33	0	1	0	1	3	0	0	0	3	2	6	0	16	1064
34	0	0	1(9, <2>)	0	0	0	0	1	6	2	1	0	22	1086
35	0	5	4<1>	2	0	0	0	0	4[1]	1	0	0	18	1104
36	0	0	0	0	2	0	0(1)	1	0	0	0	0	4	1108
37	0	0	0	0	0	0	0	1	3	2	0	0	6	1114
38	0	0	3	4	4	0	0	1	4	1	3	0	20	1134
39	0	0	3	0	3(5)	0	0	0	8	0	0	0	19	1153
40	40년부터 45년까지 독서기록 없음													
총 횟수	50	80	165 (22)	159 (9)	147 (17)	36 (0)	32 (3)	55(6)	162	118	88	4		1153

재위 45년 중 39년까지 경연에서 독서는 총 1,153회였다. 이 중 조강은 8회, 석강은 18회 정도였으며, 거의 주장위주로 독서하였다. <表 3>에서 재위 연도별로 주장 횟수를 보면, 3년 62회, 1년과 19년에 53회, 13년에 50회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해는 재위 36년 4회, 37년 6회, 10년 7회, 4년 9회, 26년 10회이다. 재위 39년을 종합한 월별을 보면 3월 165회, 4월 159회, 9월 162회, 10월 118회로 나타났다. 이는 봄과 가을에 가장 독서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독서 횟수가 가장 적은 달은 1월 50회, 2월 80회, 6월 36회, 7월 32회, 12월 4회이다. 계절로 보면 여름과 겨울이 독서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숙종은 1년 평균 25.6회 정도 독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별로는 2회 정도 독서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夜對 및 召對

先王들의 경우 夜對나 召對는 경연관 및 친밀한 문신 등을 불러 3講에서 독서했던 부분을 복습하거나 예습하고 토론하는 소통의 자리였다. 그러나 숙종은 그 절차를 무시하고 별도의 책을 정하여 召對와 夜對를 실시하였다. 숙종은 夜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夜對는 밤의 기운이 고요할 뿐만 아니라 講論이 재미가 있다. 한 堂에서 술잔을 나누는 사이에 藹然히 가족과 父子의 의리가 있기 때문에 일찍이 孝廟朝 때는 자주 夜對하시고 술을 권하며 즐거워하셨다. 그대들은 지금 각각 안심하고 酒量대로 술을 마시라.” 하였다.⁸⁹⁾ 그는 경연관을 玉堂官으로 칭하며, 그들을 불러 독서하고 토론한 뒤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숙종 45년간의 夜對와 召對는 몇 차례 되지 않는다.

<表 4> 夜對 및 召對回數

年度 \ 月	1	2	3(윤)	4(윤)	5(윤)	6(윤)	7(윤)	8(윤)	9	10	11	12	計	累計
즉위												0	0	0
1	야1	1	0	0	(1)	1	0	0	야6	0	0	0	10	10
2	야1	0	0	0	0	0	0	0	0	0	야1	0	2	12
3	야1	야1	0	0	0	0	3	0	0	0	0	0	5	17
4	1	0	0	7	2	0	0	0	0	0	3	0	13	30
5	4	0	1	1	0	1	1	0	0	1	1	0	10	40
6	0	0	0	0	0	1	3	0(1)	0	2	0	0	7	47
7	6	1	0	1	0	0	2	1	0	1	0	0	12	59
8	1	0	0	0	0	0	1	0	0	1	1	1	5	64
9	3야1	2	1	0	0	2(3)	0	야1	2	0	0	0	15	79
10	0	0	0	0	0	1	0	0	0	1	0	0	2	81

89) 『肅宗實錄』 卷65. 肅宗 大王 行狀.

年度 \ 月	1	2	3(윤)	4(윤)	5(윤)	6(윤)	7(윤)	8(윤)	9	10	11	12	計	累計
11	7	0	0	0	0	0	0	0	0	0	0	0	7	88
12	0	0	0	0(1)	0	1	0	0	0	0	2야2	1야4	11	99
13	4야4	야2	0	0	0	2	2	0	1	1	1	2야1	20	119
14	1	0	0	0	0	0	0	0	0	0	0	0	1	120
15	0	0	0	0	0	0	0	0	0	0	0	2	2	122
16	1	0	0	0	0	0	0	0	0	0	2	3	6	128
17	2	0	0	1	0	0	1(1)	0	3	야1	0	3	12	140
18	0	0	0	0	0	0	1	야1	0	0	1	1	4	144
19	0	1	0	0	0	2	1	0	0	0	0	0	4	148
20	1	0	0	0	0(0)	1	1	0	0	1	야2	0	6	154
21	0	0	0	0	0	1	2	0	0	3	0	4야1	11	165
22	야1	0	0	0	0	0	3	0	0	0	0	0	4	169
23	야1	3	0(0)	0	0	0	0	0	0	0	0	3	7	176
24	7	6	5	1	0	0	2	0	0	0	0	0	21	197
25	2	0	0	0	0	0	0	0	0	0	0	3	5	202
26	0	0	0	0	0	2	0	0	0	0	0	1	3	205
27	1	1	0	0	0	0	1	0	0	0	2	0	5	210
28	1	0	0	0	0	0(8)	0	0	0	0	0	2	11	231
29	2	0	0	0	0	0	1	0	0	0	1	2	6	227
30	0	0	0	0	0	3	2	0	0	0	0	0	5	232
31	0	0	0	0	0	0	1	0	0	0	0	1	2	234
32	3	0	0	0	0	1	1	0	0	0	0	2	7	241
33	1	0	0	0	0	0	1	0	0	0	0	0	2	243
34	9	8	2(0)	0	0	3	2	0	0	1	1	3	29	272
35	2	0	1	0	0	2	2	0	0	0	0	0	7	279
36	0	0	0	0	1	0	0(2)	0	0	0	0	0	3	282
37	5	4	3	2	1	0	4	1	0	1	3	0	24	306
38	1	0	0	0	0	3	3	0	0	0	0	2	9	315
39	3	1	0	0	3(0)	2	0	0	1	0	0	0	10	325
40	40년부터 45년까지 독서기록 없음													
총 횟수	78	31	13	14	8	40	44	5	13	14	23	42		325(야33)

<表 4>를 보면 조사결과 재위기간 총 358회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소대를 실시한 연도는 24회를 실시한 재위 37년이다. 그리고 가장 적게 한 연도는 14년 1회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숙종은 재위 45년간 평균 1년에 夜對 및 召對를 8회 정도 실시한 것이다. 월별로는 1월 78회, 12월 42회, 7월 40회, 8월 44회로 나타났다. 이는 총 45년간의 총계를 말한 수치이므로 평균 夜對와 召對를 1년에 1회가 되지 않는다. 晝講은 봄, 가을에 수치가 높았으나 召對와 夜對의 경우는 여름과 겨울에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肅宗은 재위 45년간 경연은 총 1,153회로 연평균 25.6회이며, 소대 및 야대는 총 358회로

연평균 7.95회이다. 이를 조부인 孝宗과 부왕인 顯宗의 독서력을 비교해 보면, 孝宗의 경우 재위 10년간 조강 20회, 주장 384회, 석강 40회로 총 344회, 소대는 75회였다.⁹⁰⁾ 연평균 孝宗의 경연은 34.4회, 소대는 7.5회이다. 顯宗의 경우 재위 15년간 조강 1회, 석강 3회, 주장 26회로 총 30회였으며, 소대는 총 32회였다. 연 평균 경연은 2회, 소대는 2.1회이다.⁹¹⁾ 이는 顯宗보다는 경연이나 소대 측면에서 우월하며, 孝宗보다는 소대의 경우 비슷한 수치이나 경연에서는 저조한 독서력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5. 讀書沮害要因

숙종의 경우도 초창기에는 경연을 재정비하고 열심히 독서하려 했다. 혹 다른 일로 경연관들이 정지하려 해도 학문의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하기도 했다. 즉, 재위 1년에 경연청 수리관계로 경연관들이 경연정지를 건의한 바 있었으나 숙종은 다음과 같이 거절하였다.

“하루 經筵을 정지하면 학문 공부에 연결이 안 된다. 孔子가 말하기를, ‘아침에 道를 들어 깨달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좋다.’고 하였다. 내가 밤낮으로 생각하며 이를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밤중에 비로 소 잠을 자고, 닭이 처음 울면 곧 책을 펴고 聖賢을 대하여 부지런히 힘쓰고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혹시 옛사람의 일컬은 바, ‘오늘 배우지 아니하여도 내일이 있다고 이르지 말라.’는 경계에 어긋남이 있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수리를 마칠 동안 晝講만 廬次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⁹²⁾

이와 같이 숙종은 독서의욕이 넘쳐흘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관들은 숙종의 독서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임금이 학문에 부지런하여 이유 없이 廢講한 일이 없었다. 항상 臣僚를 引接하여 날마다 같이 토론하기 때문에 經傳에 실린 것과 국가의 典章에 대한 건문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後略)”⁹³⁾

숙종은 초창기엔 주위 문신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였다. 날씨가 덥고 추울 때는 제외하고 독서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내적인 혼란과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독서환경이 좋지 못하여 점차적으로 독서하는 시간이 감소하였다. 그 원인을 보면,

첫째, 재위 1년(1675)이면 숙종 나이가 15세인데 경연을 1년 중 53회라면 많은 독서는 아니다. 집권하자마자 제2차 ‘예송논쟁’으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는 숙종이 서인의

90)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孝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66집(2016. 6), 143-187.

91)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顯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70집(2017. 6), 21-23.

92) 『朝鮮王朝實錄』 肅宗. 1年 10月 8日(壬戌) 卷4. 冊38. p.304.

93) 『朝鮮王朝實錄』 肅宗. 2年 4月 26日(戊寅) 卷5. 冊38. p.328.

“御晝講。上勤學，未嘗無故廢講。常引接臣僚，日與討論，故於經傳所載、國家典章，聞見漸博”

宋時烈(1607-1689) 등을 귀양 보내고 남인의 손을 들어주는 사건이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면서 독서의 경향이나 속도 면에서 지장을 받게 된 것이다.

둘째, 숙종 4년(1678)에는 1년 동안 주강을 9회 정도 실시하였는데, 1월에만 7회 실시하고, 5월과 10월에는 1회 독서하다가 중단하였다. 그 원인은 도성에 번진 두창 때문이었다.

세 번째의 독서 저해요인은 첫 부인인 인경왕후가 딸만 3명을 낳고 재위 6년(1680) 20세에 천연두로 세상을 떠난 데다 같은 해 모친인 명성왕후 사촌 동생 金錫胄를 기용하면서 남인세력을 축출하는 <경신대출척사건>이 일어났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독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당시 3월, 4월, 7월, 11월, 12월은 한 번도 독서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듬해인 숙종 7년(1681)에는 여양부원군 閔維重의 딸 인현왕후 민씨(1667-1701)와 재혼하기까지 하였다.

넷째는 초창기 독서저해요인은 숙종의 건강문제였다. 재위 9년(1683) 10월, 11월 두 달간 천연두를 앓았고 12월 5일에는 모친인 명성왕후가 사망하기까지 하여 독서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 후유증으로 숙종 11년(1685)까지 독서율은 아주 저조하였다.

다섯째, 숙종 12년(1686)부터 안정을 되찾고 독서에 전념하려는 자세를 취하려고 했으나 당시 숙의 김씨를 간선하고, 가장 총애하는 장씨도 있었기 때문에 독서력이 좋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더욱이 숙종 14년(1688) 장옥정이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을 원자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노론인 宋時烈이 중전 민씨가 젊어서 왕자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자는 상소를 올렸다. 상소를 받은 숙종은 중전 민씨를 폐위시키고, 노론계를 축출하면서 자신의 스승인 宋時烈을 賜死시켰다. 그 이후 남인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는 ‘기사환국’(1689)이 일어났다. 또한 숙종 14년 5월부터 다음 해 초까지 독서가 중단된 적이 있다. 그 원인은 4월 11일 교리 兪得一, 정언 金洪福, 지경연 呂聖齊, 영의정 南九萬 등과 경연 중에 宮庄의 폐단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숙종이 심하게 화를 낸 뒤부터는 계속해서 기분이 상했는지 독서를 중단해 버렸다.⁹⁴⁾

여섯째, 숙종 20년(1694) 金春澤(1670-1717) 등의 민씨 복위운동과 장옥정 강등 사건 등으로 독서환경이 좋지 못했다. 당시 숙종은 민씨를 복위시키고 장옥정을 빈으로 강등시켰다. 이로 인하여 노론계의 관직을 복위시키고 소론계를 등용시키는 갑술환국(1694)이 일어났다. 그러나 다시 복위된 중전 민씨는 7년 후 1701년에 세상을 뜨게 된다. 그 원인이 장희빈이 인현왕후 저주를 위해 신당을 차리고 굿을 했다는 사실이 희빈 오빠인 張希載의 편지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계기로 희빈은 사약을 받고, 옹호한 소론계는 파직을 당하거나 귀양을 가는 ‘무고의 옥’(1701)이 일어났다. 이러한 계속된 사건으로 인해 숙종은 독서에 치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곱째, 홍문록사건과 신병문제로 독서가 정지되었다. 홍문록사건은 숙종 39년(1713) 초에 李眞望 등이 홍문록 기록에 누락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吳命恒은 불공평함을 들어 다시 기록해 줄 것을 건의하는 상소사건이다. 그로 인해 吳命恒은 파직되고, 또한 李秉常, 尹鳳朝 등의 경연관은 숙종이

94) 『朝鮮王朝實錄』 肅宗. 14年 4月 11日(癸丑) 卷19. 冊39. p.125.

불러도 불복종하고 경연에 나타나지 않아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⁹⁵⁾ 이 후유증이 동년 4월까지 계속되었다. 5월부터 간간히 책을 읽었으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독서가 불가능하였다. 숙종은 어려서부터 병을 달고 살았다. 천연두는 물론, 해수병과 우측 무릎과 왼쪽 발목 통증, 위장병, 통풍 등이 심하였다. 또한 세월이 흐르면서 결핵과 종기가 발생하여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 때문에 재위 35년(1709) 10월부터 이듬해(1710) 4월까지 독서를 중단하기도 하였다. 그 사유가 결핵과 종기에 시달리다 병이 완쾌되었다는 기록이 실록에 보이지만⁹⁶⁾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에 시달렸다. 숙종 36년(1710) 6월 20일 지평 尹鳳朝(1680-1761)의 상소에 의하면, “근년 이래로 玉候가 많이 편찮으셔서 萬機에 싫증이 나실 것입니다.”⁹⁷⁾ 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로부터 독서는 가끔씩 했으나 신병이 깊어진 관계로 재위 39년(1713) 9월 19일 주강을 마지막으로 책을 덮었다. 결국 숙종 43년(1717)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긴 뒤 숙종 46년(1720) 6월 8일에 6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상으로 숙종의 독서저해요인을 살펴본 바 그 원인은 날씨문제 외에 2차 예송논쟁, 유행성 두창, 첫 부인인 인경왕후 사망, 경신환국, 천연두, 명성왕후 사망, 여성문제, 기사환국, 갑술환국, 무고의 옥, 홍문록 사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독서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음을 알 수 있다.

6. 結 言

이상 조선조 19대 왕인 숙종을 대상으로 경연에서 45년 동안의 독서 일정을 파악하여 그의 독서력을 고찰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肅宗은 1661년 8월 15일생으로 姓은 李氏, 諱는 焯, 字는 明普로 顯宗의 嫡嗣이며 孝宗大王의 손자이다. 현종 15년(1674) 부왕 현종이 승하하고 14세의 나이로 등극하였다.
2. 즉위년 許積에 의해 경연제도가 재정비되고 선왕들처럼 三講으로 조강, 주강, 석강, 야대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장소는 宣政殿으로 하였다. 참여 대상과 인원은 조강의 경우 전례대로 영사 1명, 특진관 2명, 兩使에서 각각 1명씩 참여하되, 주강에는 경연관과 특진관이 각 1명씩, 玉堂의 上下番과 備局의 당상 1인, 그리고 臺諫이 함께 입시하고, 武臣의 당상 1인도 또한 번갈아 참여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읽을 책으로 晝講에는 『論語』와 夜對는 『綱目』이 선정되었다.
3. 숙종은 三講(조강, 주강, 석강) 주강을 주로 실시하였고, 45년 동안 재위하면서 39년까지만 독서하고 중단하였다. 이 기간 숙종이 경연에서 읽은 책은 『論語』 『孟子』 『中庸』 『書傳』 『詩傳』 『心經』 『周易』 『大學衍義』 『聖學輯要』 『春秋集傳』 『禮記』 등 11종이며, 소대에서는

95) 『朝鮮王朝實錄』 肅宗. 39年 3月 21日(戊戌) 卷53. 冊40. p.491.

96) 『朝鮮王朝實錄』 肅宗. 36年 2月 15日(庚戌) 卷48. 冊40. p.343.

97) 『朝鮮王朝實錄』 肅宗. 36年 6月 20日(甲寅) 卷48. 冊40. p.356.

『綱目』 『宋鑑』 『皇明通紀』 『明紀編年』 『東國通鑑』 『唐鑑』 『節約通編』 『名臣奏議』 등 8종이다. 이 중 경연에서 독서기간이 가장 긴 책은 『春秋集傳』(7년 2개월), 『大學衍義』(6년 4개월), 『聖學輯要』(4년 2개월) 순이며, 소대에서는 『綱目』(23년 2개월), 『東國通鑑』(5년 1개월), 『節約通編』(3년 4개월) 순이다.

4. 독서 횟수를 보면 三綱의 경우 39년까지 총 1,153회였다. 이 중 조강은 8회, 석강은 18회 정도였다. 재위 연도별로는 3년에 62회, 1년과 19년에 53회, 13년에 50회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해는 재위 36년 4회, 37년 6회, 10년 7회, 4년 9회, 26년 10회이다. 이는 1년간의 독서 수치이다. 재위 39년을 종합한 월별을 보면 3월 165회, 4월 159회, 9월 162회, 10월 118회로 나타났다. 이는 봄과 가을에 가장 독서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독서 횟수가 가장 적은 달은 1월 50회, 2월 80회, 6월 36회, 7월 32회, 12월 4회이다. 계절로 보면 여름과 겨울이 독서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숙종은 1년 평균 25.6회 정도 독서하였으며, 월별로는 2회 정도 독서한 것으로 나타났다.
5. 夜對 및 召對는 재위기간 총 324회였다. 재위 연도별로 가장 많이 소대를 실시한 연도는 24회를 실시한 재위 37년이다. 그리고 가장 적게 한 연도는 14년 1회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 78회, 12월 42회, 7월 40회, 8월 44회이다. 이는 총 45년간의 총계를 말한 수치이므로 평균 야대와 소대를 1년에 1회가 되지 않는다. 주강은 봄, 가을에 수치가 높았으나 夜對와 召對의 경우는 여름과 겨울에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독서저해요인은 2차 예송논쟁, 유행성 두창, 첫 부인인 인경왕후 사망, 경신환국, 천연두, 명성왕후 사망, 기사환국, 갑술환국, 무고의 옥, 홍문록 문제 및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독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肅宗은 재위기간만 걸었지 거의 조강, 석강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주강과 소대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조부인 孝宗과 부왕인 顯宗의 독서력과 비교했을 때 顯宗보다는 경연이나 소대 측면에서 우월하지만, 孝宗보다는 경연에서는 저조한 독서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로 인하여 조선조 경연사 및 제왕의 독서력 비교, 독서의 역사적인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서울: 一志社, 1988.
- 『列聖進講冊目錄』.
- 『增補文獻備考』. 영인본. 서울: 명문당, 1985.
- 『顯宗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 『顯宗改修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 『肅宗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1991.
-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孝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66집(2016. 6). 143-187.
-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顯宗의 讀書歷 考察.” 『서지학연구』 제70집(2017. 6). 21-38.
- 南智大.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韓國史論』 6(1986). 117-170.
-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友石 文理大·法經大論文集』 第4輯(1970. 12). 131-186.